

일본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오사카시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사례탐방

지역상권활성화 · 커뮤니티케어

2018. 1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일본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오사카시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지역상권활성화 · 커뮤니티케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서울특별시

일본 전략기획 연수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18. 12
발행인	이은애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전화	02-35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sehub.net
표지디자인	이은한 청년혁신활동가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연수 개요	5
II	오사카시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11
	<지방정부>	
	1. 오사카부청	13
	<지역(생활)상권 활성화>	
	2.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상점가진흥조합	17
	3. 코리아타운상점가 및 코리아 NGO센터	2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및 관리>	
	4. 엘 챌린지	29
	<지역개발 및 관리>	
	5. (주)NICE (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e)	35
	6. NPO법인 쿠리시즈쿠리 네트워크 키타시바	39
	<돌봄>	
	7. 벚꽃동산	45
	8. 육아플라자	49
III	총평 및 방문소감	57
IV	참고	65
	1. 방문 기관 소개 및 현장 PT 자료	

I . 연수개요

일본 오사카시 생활상권 활성화(자산형 상가, 상인회 사업방식 등), 커뮤니티케어, 주민 주도 지역관리 등 지역기반 활성화 사례를 파악하여 향후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사업모델 개발에 활용

☐ 목적

- 오사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정책, 생활상권 활성화 사례, 커뮤니티 케어, 주민주도의 지역관리 등 지역기반 활성화 사례 조사
- 정책과 사례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 기회로 활용

☐ 기간 : 2018. 11. 19.(월) ~ 11. 23.(금)

☐ 연수지역 : 일본 오사카

○ 주요 방문기관

분야	기관
지방정부	• 오사카부청
지역(생활)상권 활성화	• 오사카부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 센니치마에 도구야스지상점가진흥조합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제도 위탁 및 관리	• 엘 챌린지
지역개발 및 관리	• (주)NICE (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e) • NPO법인 쿠리시즈쿠리 네트워크 키타시바
돌봄	• 벚꽃동산 • 육아플라자

☐ 연수 명단

○ 2018년 전략기획연수단(일본) 참석자 총 13명

번호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김명훈	함께주택협동조합 사원	
2	박이수	도시융합협동조합 팀장	
3	오정희	(주)오요리아시아 총괄본부장	
4	조수빈	유한책임회사 더함 팀장	
5	조유성	한살림서울생협 대리	
6	최형선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실장	
7	홍진주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8	이상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실장	연수 운영 인솔자
9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본 사회복지법인 로코관 초청 대상자
10	김경예	나무와열매협동조합	
11	배순옥	나무와열매협동조합	
12	오승훈	서울지역상권활력센터장	서울시 유관기관 참가자
13	박승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	

☐ 연수 전체일정

○ 선발 연수단 및 유관기관 참가자

일 자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비고
11.19(월)	출국	•출국, 김포-오사카(7C138)	
	기관방문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상점가진흥조합	
11.20(화)	오전	•(주)NICE (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e)	
	오후	•오사카부청 민간위탁제도 담당 부서 •엘 챌린지 -지적 장애인 고용촉진 건물서비스 사업협동조합, 종	

일 자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비고
		합 평가 일반경쟁 입찰제도 적용 사업장)	
11.21(수)	오전	•NPO법인 쿠리시즈쿠리 네트워크 키타시바	
	오후	•벚꽃동산 -장애인 대상 생활개호, 취업지원, 상담사업 •육아플라자 -어린이 보육, 상담, 부모참여 육아워크숍	
11.22(목)	오전	•이쿠노 코리아타운 상점가, 코리아NGO센터	
	오후	•귀국, 오사카-인천, 7C1307	

○ 사회복지법인 로코관 초청 대상자

일자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비고
11.20(화)	출국	•출국, 인천-오사카(LJ283)	
	기관방문	•이나바 타카시 로코관 이사장 초청환영회	
11.21(수)	오전	•와카쿠사(유 · 보연휴인정 어린이집) •우리즈모리쿠치(생활개호, 취로지원사업)	
	오후	•벚꽃동산 -장애인 대상 생활개호, 취업지원, 상담사업 •육아플라자 -어린이 보육, 상담, 부모참여 육아워크숍	
11.22(목)	오전	•우이릿슈(willish), 핫 커뮤니티 우일(will)	
	오후	•성애원 -“inclusive(포괄적·공생)” 보육 강연(노지마치에코) - 한일 보육교류 협의회 및 환담회	
11.23(금)	오전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상점가진흥조합	
	오후	•귀국, 오사카-인천(LJ214)	

II. 오사카시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오사카부청 (Osaka Prefectural Government)	브리핑 참석자 - 오사카부 복지부 장애복지실 자립지원과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941-0351 홈페이지 www.pref.osaka.lg.jp
---	---	---

□ 기관 개요

○ 오사카부청

- 1868년 오사카부 설치, 1926년 현재의 본청사 준공
- 2018년 기준 연간 예산 5조 4,888억 엔
- 오사카부의 장애인구 현황
 - 30년 전 오사카부 주민 40명 중 1명이 장애인이었으나 현재 15명 중 1명이 장애인
 - 일본 전국 장애인 비율에 비해 오사카부의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임
 -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숨겨져 있던 장애인구가 수면에 드러나고 있으며 오사카 부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기준 3.59%로 전국 1위에 해당

□ 주요내용

○ 행정의 복지화

- 정부의 모든 분야에 있어 복지의 시점으로 총점검하고, 주택, 교육, 노동 등 각 분야와 연계,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선하여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의 고용,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 주요 정책
 - 고용 및 취업지원 강화
 - 훈련 지원: 청소업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부청 내 현장실습 진행
 - 직장 정착 지원: 오사카부 소유 시설 청소업무에 종합평가입찰 도입
 - 취업 지원
 - 공공의 지원(하트풀 오피스, 공공근로 비상근직 고용)
 - 민간 지원(공공 공사 발주 시 장애인 고용 및 취업 촉진, 지정 관리 제도를 통한 취업 곤란자 고용 평가)
 - 기존 자원을 활용한 복지 정책 추진
 - 부영 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제공

청사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취업시설의 제품 판매기회 제공
 장애인 우선 조달 추진에 기초한 물품 구입 등

○ 주요 정책 사례 1: 청소업무 직업훈련 기회 제공

- 2000년부터 오사카부 소유시설의 청소업무 발주 시 “오사카 지적장애인 고용촉진 건물서비스사업 협동조합 - 엘 챌린지”에 직업훈련의 장소로 제공하여 지적장애인 직업훈련 시행
- 2017년까지 총 2,000여 명의 훈련생, 3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 취업 연계

○ 주요 정책 사례 2: 오사카부 청소업무 종합평가 일반 경쟁 입찰 제도

- 2003년 전국 첫 사례로 대규모 시설의 청소업무 발주 시 종합평가 입찰제도 모델을 도입, 2004년부터 본격 실시
- 공공성 평가 항목
 - 환경에의 배려(재생용품 사용, 저공해 자동차 이용 등)
 - 복지에의 배려
 장애인 고용 현황(고용률, 고용인수, 정착률, 고용지속기간 등)을 종합 평가
 장애인 지속고용과 관련된 사고방식과 취업곤란자 고용 조건 (근무시간, 보험가입 등) 확인
- 공공성 평가 항목(복지에의 배려) 평가점의 확대

	2003년	2004년	2005년
가격 평가	70점	62점	50점
기술, 공공성 평가	30점	38점	50점
복지에의 배려	13점	16점	30점

- 오사카부 청사를 포함 총 10개 시설에서 시행 중
- 종합평가 입찰 시행 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35%에서 2017년 13.46%까지 상승하였고, 엘 챌린지 조사에 따르면 직장 정착률도 80%를 상회
- 비용 대비 효과
 - 연간 투입 예산(약 5,400만엔) 대비 시설 지원금 감소분과 소득세 증가분 (약 9,400만엔)을 비교, 약 4천만엔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
 - 15년 간 약 6억엔의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 종합평가제도에 따른 추가 비용 보다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유효한 정책임이 입증됨

- 오사카부 “유니버설 취업조례(가칭)” 검토 중
 - 공공의 사례와 성과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려는 노력
 -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업 곤란자 고용에 공헌한 기업을 표창
 - 취업 곤란자의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직업훈련, 직업영역 개척, 고용주 매칭, 직장정착 지원 등)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 제도와 관련, 취업지원비용을 산입한 노무단가 산출, 우수 기업 심사, 중간지원조직 지정 등 유니버설 취업 조례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 주요 정책 사례 3: 공공 취업지원 정책 “하트풀 오피스 - Heartful Office”

- 오사카부청 복지부 산하 장애복지실 자립지원과에서 운영
-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지적장애인을 비상근 작업원으로 최장 2년 7개월까지 고용하여 훈련, 지원하는 프로그램
- 부청 내 각 부서의 다양한 사무보조 업무를 발주 받아 하트풀 오피스에서 처리
- 주요 업무
 - 사무보조: 서류 정리, 전단지 계수, 양케이트 결과 등 엑셀 입력, 자료 인쇄/복사 등
 - 타 부서 파견: 스캔, 문서 세단, 창고 정리, 사무실 이전 보조 등
 - 부청 내 우편 업무: 우편물 분류, 발송 우편물 집하, 문서 배달 등
 - 기타 취업 훈련: 사무실 청소, 전화 응대, 하트풀 오피스 견학 시 설명 등
- 고용 조건
 - 근무시간: 주 26시간 이내, 교통비 지급, 각종 보험 적용
 - 급여: 오사카부 일반 비상근직 급여 수준(현재 시급 959엔)
 - 선발방법: 지적장애자/정신장애자 대상 비상근 작업원 채용 선발
- 취업까지의 프로세스
 - 준비기간(7개월): 통근습관 확립, 작업기술 습득, 비즈니스 매너 습득
 - 스텝업 기간(12개월): 파견 업무 경험, 협동 작업 리더 역할 수행, 이력서 작성 연습, 기업 견학
 - 구직활동 기간(12개월): 기업 실습, 후배 지도, 구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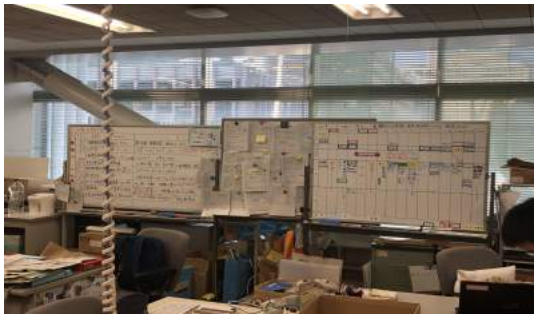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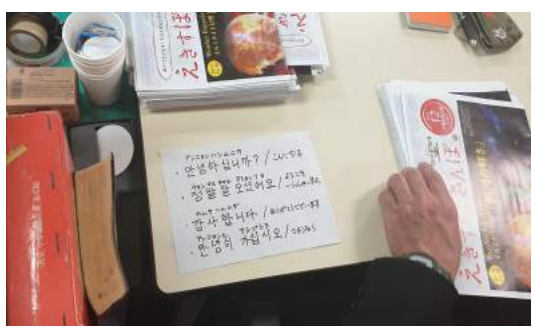
□ 시사점

- 민관 협력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일구어 냄
 - 정책의 수혜 대상, 실행 민간업체,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로부터 정책 입안이 시작 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기획이 가능하였음

- 담당 부서와 공무원의 포용력과 장기간에 걸친 입안,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
- 민간과 정부 양 측이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음
-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제도로 정착하기까지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업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 고용과 직장 정착을 위한 주의점

-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
- 장애인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며 과보호, 과지원하지 않으며 동등한 주체로 인정
- 장애인 근로자도 직장의 일원이라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전담 스태프를 배치하여 직무훈련과 정착과정의 실질적 지원
-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공공, 복지단체와 연계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오사카부청 하트폴 오피스 전경	작업 목록과 순서를 적은 메모보드
	
봉투 작업 진행 중인 훈련생들	연수단 환영 문구를 준비한 훈련생들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및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상점가진흥조합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 연합회	브리핑 참석자 - 가와사키 준이치 지원과장 면담 - IT홈페이지 담당직원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947-4333 주소 阪市中央区本町橋2番5号 (マイドームおおさか 6階) (〒540-0029) 홈페이지 http://www.mydo.or.jp/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 상점가	브리핑 참석자 -센다 이사장 -다베 사무국장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633-1423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区難波千日前5-19 河原センタービル(〒542-0075) 홈페이지 https://www.doguyasuji.or.jp/

□ 기관별 개요

○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 오사카부 하 210여 개의 상가진흥조합 참가, 전국 47도 도부현의 연합회 중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회원조합수와 회원수가 많은 연합회
- 설립목적: 「상가진흥조합법」에 따라 도시지역환경 정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가의 조직 및 조직된 상가진흥조합의 진흥과 발전 도모, 국가와 오사카의 중소 소매/상업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상가진흥조합이 소재하는 지역자치단체와의 조정 도모
- 조합가입 이점: 상점가 근대화 강화, 신용도 상승, 유리한 자금 융자 조건, 보조금 지급,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진흥시책 활용, 세제혜택, 각종 정보수집 및 교환 용이
- 5개 위원회로 구성: 총무위원회, 정책위원회, 공동사업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청년부
 - 위원회별 주요 사업

- a. 총무위원회: 조직 강화 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금융에 관한 사업, 청년부의 조직강화와 지도
- b. 정책위원회: 세제에 관한 진정활동과 요망활동, 상점가에 관한 법률의 강화/개정에 관한 진정/요망 활동,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추진과 계몽활동, 상업활성화 위원회, 상점가진흥기금 사업의 실시, 점가의 경쟁력강화기금사업 추진
- c. 공동사업위원회: 상점가 활성화 및 재생추진사업의 실시, 오사카방식의 신용카드 추진
- d. 교육정보위원회: 상점가 조직화 추진사업의 실시, 각종 교육 및 강습회의 실시, 상점가 인터넷 쇼핑몰사업 실시, 상점가 국제화연구회 사업 추진, 정보제공 사업실시
- e. 청년부: 세미나, 교류사업등 실시

○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상점가

- 62여개 점포로 이루어짐, 출자금 1만 엔으로 설립지역 내 상점이 자가 80%, 임대 20%
-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점가(1882년 도구야스지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130년이 넘는 동안 오사카의 중심에서 상점가 운영, 3대째 이어져 100년의 역사를 지닌 가게도 존재)
- 전통 있는 조리기구 및 도구 판매(전문용품부터 가정용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상품 구비)
- 진흥조합 결성 후 국가로부터 시설지원금 수혜, 설립목적은 협동의 이익을 통해 자산 가치 유지
-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브랜드 확립 시도
 - 플랫폼화 '거리-시간-장소' 불문, 주변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매력 제공, 상점가 주도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도구 체험활동, 상점가의 음식 체험, 도구야스지 축제 개최 등)

□ 주요내용

- 8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침체 지속 및 상점가 쇠퇴로 인해 97년부터 진흥회 주도로 상점가 개편 시작. '지역활성화 활동 및 문화 재구축'에 초점

○ 'only one'전략

- 체험학습(공동체와 관계 개선 및 유지, 시장 내 직접구매 활성화 유도)
- 상점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 고민(라멘, 타코야끼 등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중심, 특색 있는 물품 구매가 가능한 곳으로 변화 시도, '상점가'자체를 특화 상품화)

○ 지역활성화 활동을 위한 노력

- 인재 육성(기업가 발굴, 후계자 양성, 인맥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
- 안전안심이미지조성을 위한 노력(2004부터 단체, 상점가, 호텔, 백화점, 행정, 소방 등이 연합하여 ‘오사카 위원회’ 결성, 해당 위원회 중심으로 오사카 활성화 시도. “힘내라 오사카”를 모토로 활동. 2017년에는 오사카사업실행위원단이란 일반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성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듦)
- 시장 내 치안관리, 질서유지 등(안전, 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노력, 시장 내 설비 제작 및 유지, 손님 대처 노하우 등 공유)
- 상점가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인의 자발적 참여와 연합회의 교육(안내 등) 필요, 이를 위해 계몽관련 교육 병행

○ 자체 재정 만들기

- 세금을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고향에 내는 기부세금 중 1천 엔을 한도로 상점가진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 상점가 진흥을 위해 세금 기부 시, 기부자에게 2천 엔 한도로 상점가의 특색상품을 선물로 증정)

○ 상점가 특성화 시도(상점가 공통과제) 및 상점가에 대한 지원 활성화 노력

- 사람들의 관심도 제고 시도(시장전체에 대한 홍보)
- 지도, 어플, 전단지 등 제작 및 배포(예: 영상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터치’ 어플 개발. ‘수화,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통역 가능.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님 - 통역사 - 가게주인’을 연결. 영상통화를 통해 가게 주인이 설명할 수 없는 걸 통역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줌)
- 상점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개발(마스코트를 활용한 지도 제작, SNS인증 등)

○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보다 내·외국인 관광객에 초점

- 관광지에 위치한 상점가의 이점 활용
- 상점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위주로 상점가의 방향 전환
- 실제 지역주민에 의한 매상은 1% 정도에 불과(일본 내 저임금으로 인해 국내 소비 비중이 크지 않음)
- 관광객 대상시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저가상품위주로는 가지 않음(저가상품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음)

○ 행정의 지원 유형

- 행사 기획 시 행사 지원금 지원,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외국어 다문화 관련 지원(외국어 홍보물 제작, 외국어 매뉴판 제작 등), 언어전문가, IT전문가 등 전문가 파견 지원, 소규모 가게 대상 소비세(8%) 면제 등의 혜택 제공 등

○ 상점가 조합원의 의견 자치단체에 전달, 정책 및 예산에 반영 노력

- 예시: ‘어린이 식당’ 정책. 사회의 모습이 변하면서(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증가) 혼자 저녁식사를 하는 아이들 증가.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상점가가 함께 재료를 모으고 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제공, 아이들에게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성장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도움. 이 식당에 대한 행정의 지원 요청

○ 장사이외의 활동 중시(비영리적 부분)

- 아이들 대상 체험학습 제공(시장을 사회생활의 역할 습득의 장으로 활용, 손님맞이, 인사, 상품 설명, 계산 등 가게에서의 종합 흐름을 경험 등)
- 상점가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 실시(참치 해체 이벤트, 상품권 추첨 등 손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
- 체험이벤트를 위해 상점가, 행정(오사카시)의 부분적 재정 지원

○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조언

- 한국과 일본은 상인회의 주참여자 및 관점 등이 다름(한국은 임차상인 중심, 일본은 건물주 중심)
- 일본 내 젠트리피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 일본건물주는 임대수입 중시, 매매차익보다 안정적 임대수입을 얻는 것에 초점. 대형건물주보다 개별소유 건물주가 많아 건물주별 개별 대응과 고민이 가능함
- 한국과 일본은 행정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름. 한국은 행정에게 장사가 불편하니 개선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장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교류추진을 도와달라고 요청함
- 법으로 의식변화 불가능, 상인 스스로 체감해야 의식변화 가능, 상점가에서 리더를 양성해서 엑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기책임을 높이고 경쟁 촉진(생존경쟁이 심화되어야 자구책 구하기 가능), 정책적 지원보다 자립과 자주에 초점 맞추기

○ 육아세대, 고령세대를 위한 상점가의 활동

- 육아세대 및 고령세대를 위한 가격할인 등의 특별서비스 제공.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에서는 서비스제공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육아세대와 고령자세대는 해당 가게를 방

문하여 등록증을 제시한 뒤 서비스 수혜 가능. 동 서비스는 행정에서 제안. 스티커를 부착하는 가게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지원은 없으나, 해당가게에 대한 PR등은 지원

○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 다문화 국제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유학생들의 인턴활동, 아르바이트 등 활동 허용,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 면세상품 개발 등)
- 전문가 파견 지원(3개 이상 상점이 모일 경우, 연합회에 전문가 파견요청 가능. 1년에 10번 한, 상품 개발 조언 및 SNS등 활용한 판로개척 도움)
- 시대변화를 비즈니스 찬스로 활용(예: 자동차연료가 기름에서 전기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필요, 자동차산업 하청업체가 많은 오사카는 기존 제작시스템으로 대응이 불가하여 부품개발 및 시스템전환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
- 중소기업의 잠재능력과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한 노력(단순 물품 판매가 아닌 고품질의 안심할 수 있는 상품, '메이드인 제팬'의 신뢰성 및 안심도 제고 목표)

- 오사카부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조합가입 이점 추가 설명
 - 유리한 자금 융자 조건 및 보조금 지급: 아케이드, 가로등, 컬러 포장, 공동 주차장, 커뮤니티 홀 등 공익성이 높은 공동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무이자 조성 한도 80 % 및 상환기간 20년 이내 등 유리한 대출 조건 제시, 최고 2억8500만엔의 시설정비비 보조금 등 각 지자체의 각종 장기저리의 융자제도 이용 가능
 - 세제 우대: 법인세는 경감세율 적용, 재산세는 상점가진흥조합 소유의 사무실과 창고의 면제, 사업소세는 과세표준이 1/2로 경감. 등록면허세, 인지세, 영업세, 부동산취득세 등의 일부 감면 조치
 - 각종 정보수집 및 교환 용이: 연 4회, 회원용으로 회보 발송

□ 시사점

-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대상을 상인에서 임대인(건물주)·주민 등으로 다각화 필요
 - 한국은 건물주가 매매차익을 지향하는 반면, 일본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지향하므로, 건물주가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로 활동함
 - 건물주의 지향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운영의 주체를 상인뿐 아니라 임대인, 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 상인의 집합체로서의 상점가가 아니라 건물주,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공동체로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 필요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점가의 역할 개선 및 실행 체계 마련
 - 독거어르신 돌봄, 어린이 식습관 개선, 돌봄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 부여
 - 지원금과 상인회비에만 의존하는 상인회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리더와 리더그룹의 양성을 통한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 체계 검토
 -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이유는 ‘상인이 원하는 사업’과 ‘상점의 고객이 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
 - 상점가의 리더는 상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 리더 육성을 위해 고객수요 등 장기적인 교육 체계,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권한 이양,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검토 필요



상점가 전경



상점가 전경



상점가 판매 물품



상점가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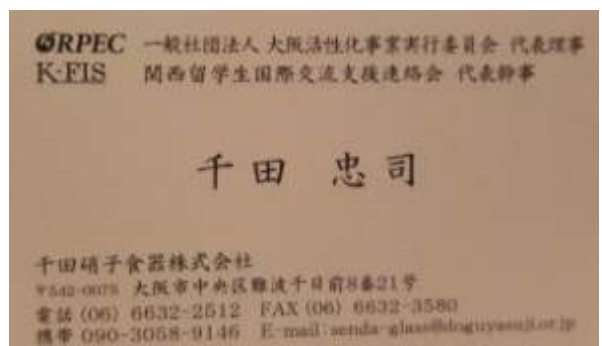
기관설명



기관설명(자체개발 어플 소개)



오사카부 상점가 진흥조합 연합회



센니치마에도구야스지 상점가 진흥조합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브리핑 참석자 - 곽진웅 코리아NGO센터 운영위원장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712-7150 주소 4 Chome-5-15 Momodani, Ikuno-ku, Osaka-shi, Osaka-fu 544-0031 홈페이지 http://ikuno-koreatown.com
	코리아NGO센터	브리핑 참석자 - 곽진웅 운영위원장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978-7676 주소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7 さん くすホール2F 홈페이지 http://korea-ngo.org

□ 기관 개요

○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 코리아타운 구성

- 이쿠노 코리아 타운은 미유키도리(御幸通) 중앙상점회, 미유키도리 동쪽상점회, 미유키도리 상가, 총 3개의 상점가를 가리킴
- 현재 120개의 점포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으며, 17개의 김치 전문점, K-POP 관련 물품가게, 빙수가게, 한국음식점 등과 한국 식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들로 구성

- 상점가 연혁

- 1920년대: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온 조선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살면서 조선인들을 위한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
- 1920~30년대: 현 미쿠니도리 중앙상가 뒤편에 조선시장이 생기며 ‘미쿠니도리 상가’출범
- 1945년: 미쿠니도리상점가에 한국, 조선인의 점포 개점
- 1951년: 미쿠니도리상가 타운은 미유키도리(御幸通) 중앙상점회, 미유키도리 동쪽상점회, 미유키도리 상가로 나뉘짐
- 1984년: 오사카청년회의소와 한국청년회의소에 의해 코리아타운 제안
- 1992년: 미쿠니도리 동쪽 상점회가 진흥조합에 개편

- 1993년: 상점가 문과 도로 포장 완료
- 1997년: 3개의 상점회의 합동이벤트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쿠노 죠아요! 코리타운축제(生野チョアヨ! コリアタウン祭り)”를 개최
- 2008년: 3개 상점회의 합동실행위원회를 출범하여 행사개최
- 2014~18년: 가로등 재건축 및 방범카메라 설치



코리아타운 전경



코리아타운지도(출처:<http://ikuno-koreatown.com>)

○ 코리아NGO센터

- 재일국민주인권협의회, 민족교육문화, 원코리아 페스티벌 실행위원회 통합체

-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민권협): 재일교포 뿐만 아니라 재일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한 일간의 시민, NGO 교류협력사업 등을 담당
- 민족교육문화센터: 재일교포 어린이들의 민족 정체성과 자부심 육성을 목적으로 오사카 공립학교 민족학급 제도 확보를 위하여 활동
- 원코리아페스티벌: 오사카와 도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주제로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
- 코리아NGO센터의 사명
 - 재일교포의 민족 교육권의 확립과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
 - 재일교포 사회의 풍부한 사회 기반 창조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코리안네트워크의 구축
 - 남북한·일본 간의 시민, NGO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개와 시민사회의 상호 발전에의 기여
 - 남북한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요내용

○ 코리아타운상점가 및 코리아NGO센터

- 코리아타운 배경
 - 현재 오사카시 이쿠노구 인구는 13만명으로 남북한 국적 25000명이 거주하며 외국인이 20% 살고 있음
 - 재일교포가 많이 살게 된 건 약 100여 년 전부터이며 원래는 일본인 상점밖에 없었던 곳이었으나 식민지 때 많은 조선인이 일자리 때문에 여기 와서 생활을 시작하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는 시장으로 변모
 - 즉, 조선인 이주를 계기로 김치가게, 한복가게, 조선인을 위한 생활용품 가게가 생겨나면서 코리아타운 형성
- 코리아타운 성장과정
 - 당시 재일교포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점포 창업을 위해서 초기자금이 필요했지만 일본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일교포들의 출자 신용조합을 조직
 -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일본상점가에서 ‘조선시장’이라 불리며 재일교포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뀜
 - 간사이의 재일교포 관혼상제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곳이 되며, 재일교포의 식문화를 지탱해주는 시장으로 자리잡음
 -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더쿠야마 물산’이라는 한국 식자재 유통회사가 탄생하며, 일본에서 가장 큰 마트인 이온(AEON)에 한국 식자재 납품 하고 있음
 - 초기에 코리아타운은 김치냄새, 마늘냄새가 나는 차별의 대상 지역이었지만, 한국 식문화를 지탱한다는 점이 코리아타운만의 특징이자 강점으로 전환됨
 - 또한 재일교포 1세의 사람이 중심이었던 시절, 한국식으로 관혼상제를 치르며 빼앗긴

민족성을 되찾고,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며, 재일교포에게 유일하기도 한 커뮤니티 장소



곽진웅 운영위원장, 재일교포 은행 당시 사용되었던 금고

- 코리아타운 쇠퇴과정

- 시장 고객 감소의 원인 중 첫 번째는 재일교포 세대교체로, 1세에서 2세, 3세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뀌며 식생활도 바뀌고 한국 관혼상제 전통에 대한 애착도 바뀌기 시작하여 손님이 줄고 손님 한명 당 단가도 줄어들어 80년대 이후에 쇠퇴
- 두 번째 이유는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흥미를 갖거나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며 한국 식문화에 주목하고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비롯한 한국 식자재를 팔기 시작. 코리아타운은 그때까지 유일했던 강점이었던 한국 식자재를 어디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코리아타운만의 강점을 상실

- 코리아타운 극복과정

- 기존의 조선시장에서 코리아타운을 만들자는 구상을 시작
- 시장의 상인들이 한국, 일본 국적을 떠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감소하는 재일교포 고객이 뿐만 아니라 일본인 고객 증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 일본인 고객과 1990년대를 맞아 증가한 일본 내 외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위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
- 오사카 시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국내외 국제화 방안을 이야기 중 1993년 코리아타운을 다문화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추진하며 오사카시 조성금, 행정의 지원으로 동네의 설비를 재단장
- 이외에도 다문화 체험 등 콘텐츠 사업 전개하여 연간 체험학습 방문객 1만명

- 현재 코리아타운의 강점: 콘텐츠 사업

- 학교에서 다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 됨. 코리아NGO센터가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 장

소로 안내하는 일을 함.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

- 모객방법은 학교에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 교육관계자가 모이는 곳에 홍보, 교사에게 직접 홍보, 오사카시 행정에서 오사카 관광국과 연계하여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함. 여행사와의 연계도 있는 예를 들어 JTB, 긴테츠, 일본여행 등 대형 여행사와도 연계
- 프로그램 내용은 동네의 역사 소개, 재일교포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문화 체험으로 김치 담그기, 장구 연주 같은 전통놀이 등을 진행
- 교육여행으로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인권, 다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님
- 수업프로그램 매출이 1300만엔/년

□ 시사점

○ 외국인 밀집지역 발전 사례

- 차별받는 지역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닌 지역으로 발전
 - 자체문화역사의 콘텐츠화: 오사카시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도쿄의 신오오쿠보 코리아타운과 달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재일교포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이를 교육콘텐츠로 발전시켜 코리아타운의 꾸준한 방문객을 유도
 - 서울시 유사 사례: 서울시내에 조선족 밀집지역으로 대표되는 가리봉동, 대림동 등의 지역도 얼마 전까지 기사 속, 영화 속 우범지대로 그려지고 기피대상 지역이었지만, ‘마라탕’, ‘마라상귀’와 같은 음식을 매개로 해당 지역에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내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요리 뿐만 아니라 자체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재생방법이 필요

○ 프로그램 기획 조직의 필요성 검토

- 상인회와 구별되어 있는 기획조직
 - 코리아타운 내 상점가의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프로그램은 상점가를 무대로 하여, NPO, 시민단체가 운영하여 코리아타운을 하나의 마을학교로 기획하고 전파해 나가는 것
 -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수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상점가 가게주인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윈-윈 관계를 유지
 - 기존 청년몰과 같이 외부인력이 상점가에서 새로운 점포를 내는 것이 아닌 상점가의 환경 기반한 콘텐츠 기획 및 발굴 활용 필요, 관련 기획단체와의 접목 검토가 필요

4

엘 챌린지

 エル・チャレンジ 大阪知的障害者雇用促進建物サービス事業協同組合	엘 챌린지	브리핑 참석자 - 대표이사 도미타 가즈유키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920-3521 이메일 info@l-challenge.com 홈페이지 www.l-challenge.com

□ 기관 개요

○ 엘 챌린지 (오사카 지적장애인 고용촉진 건물서비스사업 협동조합)

- 지적장애인 등 취업교육 및 지원

- 1999년 길어지는 일본의 불황으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시기 “일자리를 위한 도전(노동Labor, 도전Challenge)”이라는 의미로 오사카 지적장애인육성회, 오사카지적장애인육성회, (주)굿월사카이, (주)나이스 네 곳으로 구성된 사업체 엘-챌린지(오사카지적자장애인고용촉진 건물서비스사업 협동조합)이 지적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설립됨. 현재는 정신 장애인 사회 복귀 촉진 협회, 엘 챌린지를 더한 총 6개의 단체로 구성된 일본유일의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자협동조합
- 지적 장애인 등의(정신 및 발달 장애 취업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현성이 높은 청소 업무에 종사 및 취업훈련으로 고용의 확보, 취업 후 정착 지도까지 일관된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 지원 시스템의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을 운영함

- 연혁

년도	엘 챌린지	일본 사회의 움직임
1999	5월 조합설립, 부립 대형 아동관 청소위탁	- 오사카가 '행정의 복지화' 프로젝트시작
2000	- 연중형 훈련 현장: 13시설, - 단기취업체험 현장: 16시설	-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채용코치사업 시작
2001	- 제1기 수료생 12명이 취업 -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의 청소업무 수탁	
2002	- 동료모임 고시엔 응원기획을 개최	- 입찰제도 개혁 - 지자체 빌딩관리 계약 연구회 발족
2003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촉진협회 조합가입 - 오사카부청 현관 청소 수탁	- 오사카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제도'도입
2004	- 제1회 전국 세미나 개최 - 취업자 총100명 돌파	- 오사카시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제도'도입
2005	- 제2회 전국 세미나 개최 - 연중형 훈련현장: 60 시설	
2006	- 제3회 전국세미나 개최	- 오사카 부영공원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 영국 사찰단 방문	
2007	- 제4회 전국세미나 개최 - 오사카 공임 배증 계획 추진사업 수탁 - '지적 장애인을 의료 현장에' 오사카 제생회와 공동제작 DVD 발매	- 오사카빌딩관리협회와 협동사업 시작 - 제1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2008	- 제5회 엘-챌린지 세미나 개최 - 공임 두배촉제 개최	- 제1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 제2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2009	- 제6회 엘 챌린지 세미나 개최	- 비루멘 휴먼페어 in교토 참가 - 텐진가마 청소 자원봉사 - 제3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2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0	- 제7회 엘 챌린지 세미나 개최	- 텐진가마 청소 자원봉사 - 제4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3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1	- 오사카빌딩 관리협회와 공동 사업 '정책입찰연구포럼' 개최 - 제8회 엘 챌린지 세미나 개최 - 전국 빌딩관리협회 발간 '장애인고용매뉴얼' 작성	- 텐진가마 청소 자원봉사 - 제5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4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 아비린핏쿠(청소부문) 개최
2012	- 엘 챌린지 복지사업진흥기구 설립 (오사카부 공임향상계획 추진사업 위탁) - 엘 챌린지 설립 (취업이행 사업소 개소)	- 텐진가마 청소 자원봉사 - 제6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5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3	- 오사카시 장애인단계사업 위탁 - 비루멘협회와 합자회사설립 - 청소기능텍스트 제2판 완성 전국빌딩관리 협회 감수	- 장애인 종합 지원법 시행 - 제7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6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4	- 설립15주년 엘-챌린지 (취업지원 B형 사업소 개소)	- 제8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7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5	- 오사카부 공동사업 '취업지원 양성강좌」개최 - 엘 챌린지 L's college 오사카 (자립 훈련) 개소	- 제9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8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6	- 오사카시 종합의료센터 고용지속 문제	- 제10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9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2017	- 엘 챌린지 L's college 오사카 플러스 (B형 사업소) 개설 - 엘 챌린지 공제제도 실현 노력 (조성사업 활용) ※ 훈련 종료생 (취업자)설문조사 실시	- 제11회 비루멘 장애인고용 직원양성강좌 - 제10회 비루멘 사회공헌 세미나 개최

*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제도: 오사카부청 자료 참고.

- 훈련·취업시스템

- 엘 챌린지의 주요 취업지원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형 훈련'과

훈련을 마치고 일반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연중형(1년) 훈련’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고용정착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등 3가지로 되어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밀함과 상황대처능력을 보완하고자 건물유지관리의 순서, 도구사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화로 교육하고 훈련시킴



엘 챌린지 교육생 훈련매뉴얼 설명

1 단계		
1. 본인 및 지원 기관으로부터 취업 희망 듣기 2. 희망을 존중한 훈련 현장 조정 3. 사전 훈련 '기술 강습회' 참가		
↑↑	2 단계	1. 오사카부 훈련현장 (50개소) 훈련시작 2. 개별지원계획 훈련분석시트 작성
	↓	- 청소기술 습득 - 의사소통방법, 금전감각, 사회시설 이용법 등 습득
3단계		
↑↑	↓	1. 본인의 희망을 듣고 개별 진로 면담 2. 헬로우 워크와의 연계 (구직 등록) 3. 장애인 직업 센터와 지역의 장애인 취업, 생활 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
	4단계	본인의 희망을 듣고 (개별 진로 면담)
	↓	1. 헬로우 워크와의 연계 (구직 등록) 2. 직장 견학, 기업 실습 3. 각종 제도 및 후원금 안내
	5단계	1. 기업 면접 ※ 본인 및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모의 면접 실시 2. 노동 조건의 확인 3. 각종 제도 · 보조금 활용
	6단계	1. 직업 코치의 활용 2. 작업 및 통근 수단 확인 3. 직장 내 지원자 개척
	7단계	1. 정기적 직장 방문 2. 본인 고민 듣기 3. 기업에서 상담 ※ 지역의 취업 및 생활지원 기관 지원
갈등조정		1. 본인 및 관계 기관과 조정 2. 기업 측의 이유를 확인 3. 취업 지속을 위한 고용 환경 조건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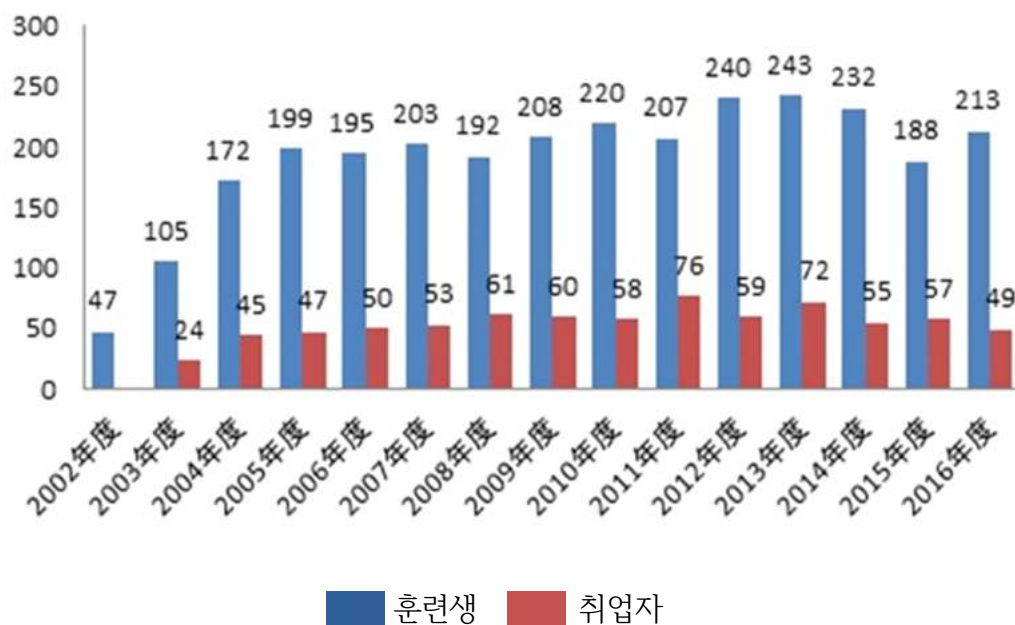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엘 챌린지의 현재

- 규모

- 총 매출 3억엔(사업비와 관리비 비율 9:1)
- 직원 70명(직접고용 20명)

- 훈련생·취업자 현황



- 훈련생 50명, 빌딩 청소, 건물 유지 보수 업무, 병원, 요양원, 보육원 누적취업자 800명 (2018년 현재)

- 공조회

- 이용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회비로 상조회를 운영
- 공조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함께 모여 놀자.
취직후 집-회사로 제한되는 장애인들이 일만이 아니라 놀고 즐기는 제3의 장소제공
 - 상담
제도적 취업지원기간 3년 이후를 지원하는 서로 이해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차별 등의 문제 법적조치 등을 지원.
 - 서로도움
서비스제공(할인, 추가혜택 방법 등), 보험(입원, 치료), 근속축하금(10년) 지원
 - 알림
집과 회사 반복생활로 얻기 어려운 재활훈련센터, 복지시설, 생활, 취직관련정보제공

○ 엘 챌린지의 도전

- 지원방식변화

- 설립 20년 사이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민간기업 등의 CSR, 사회적공헌이 강조되고 있음. 설립초기와 비교하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됨. 처음에 일자리 찾기에 분주했지만, 이제는 계속 일자리에 정착하여 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일본에는 취업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 않음. 취업 후 3년간 지원책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지원책이 없음. 장애인의 경우 3년까지가 안정기이고 이후에는 직장 내 변화나 연령, 생활환경, 가족구성원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업 3년 이후 지원책이 필요함

- 장애인 고용률

- 현재 일본의 법적 고용률은 2.2%이며 1명 미달시 월 5만엔 연간60 만엔의 고용부담금(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장애인 1인 고용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고용부담금 금액을 상회하여 법적 고용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병원청소업무 고용위탁(위험부담이 큰 분야. 수액. 주사 등 용품의 위험성)속에서 지적 장애인 고용이 무리라고 받아들여졌으나 엘 챌린지는 병원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고 이해하기 편리하게(유니버설디자인)설계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병원 및 요양원 등 취업 활로를 확장
- 현재 일본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89%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고용률 2.2%를 달성했다는 현실 상황 부풀리기 경향이 있음. 일시적 성과나 비판에 밀려 숫자를 채우는 수준의 장애인 취업지원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률 확대를 위한 근본적 개선과 노력이 민간과 공공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

- 사회적 인식변화

- 장애인들 부모나 지원자에 의한 변화뿐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화시키고 직장 내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동료와 친구들의 차별 없는 모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문화 필요
- 장애인지원 제도의 적용범위가 장애인수첩을 소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는 현재의 의료적 판단에 의거한 장애인 지원에서 사회적 판단에 의한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의무 고용률 등 강제성에 의한 장애인고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과 접근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 존재

□ 시사점

- 엘 챌린지의 조합구성을 보면 NPO, 복지기관, 주식회사 그리고 육성회로 구성된 업종이나 성장단계별 분류가 아닌 ‘장애인고용’ 이라는 명확한 문제 중심으로 모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민간영역에서 조직이나 형태, 부문을 넘어서는 당사자, 지역사회와 구체적 문제 중심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업시스템으로

서 의미가 있음. 그 과정에서 각 조직이 리더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역할을 나누고 또 각자 역할수행을 위해 긴밀히 사업적,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사회적경제가 형식적 업종·지역별 협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내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협업의 좋은 사례로 여겨짐

- 엘 챌린지의 도전은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저 도움을 받으라는 일방적 관계구조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훈련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도전으로써 유의미함. 장애인 수첩으로 장애인을 판별하고 지원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수첩 없이도 지역 안에서 서로 돌봄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이후 취업자들에 대한 사후지원, 자발적 모임 공간(레스토랑운영), 공조회 등의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내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



엘 챌린지 대표이사 도미타 가즈유키 질의응답시간



(주)나이스
NICE
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

브리핑 참석자

- 타오카 히데토모 등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563-1156

홈페이지 www.nice.ne.jp

□ 기관개요

가. 지역개요

○ 오사카시 니시나리구는 일본의 혼한 맨션과 공장이 혼재한 지역이며, 일용직노동자와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짐

- 주거가 불확실한 일일노동자, 노숙자, 마약중독자 등이 집단으로 배회하는 슬럼화 지역
- 아이린 지구와 같은 피차별 부락 지역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함께 노후 목조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생활환경까지 더해져 “니시나리는 무섭고 더러운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고 부락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

○ 사회복지법인, 복지NGO 등 지역활동가들이 연계하여 부락해방운동,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음

- 1993년 부락해방동맹 니시나리지부 및 각 단체들이 연합한 ‘니시나리 마츠쓰쿠리 조성위원회’가 발족됨, ‘니시나리 구민인권선언’을 발표
- 니시나리구의 고령화세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주택과 간이주박소 전용 공동주택, 공용주택 및 관련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

나. 조직현황

○ 오사카시 북서부 니시나리 지역에 위치한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전문회사

- 1997년 5월 자본금 2,000만엔으로 설립되었으며 (a) 환경복지사업부 (b) 지역개발사업부 (c) 비영리생활지원사업부 등으로 구성
- 직원 중 40% 정도가 니시나리구에 거주하며 60%가 오사카시 주민이고 직원들의 연령대는 다양한 편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기반의 특징

- 공설공영 주민교류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시설인 인보관 사업이 오사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 사회 내 필요에 의해 (주)나이즈를 설립하여 공간을 운영하고, 민간중심의 적극적 주민 지원사업을 수행
- 건물의 1, 2층은 고령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어린이 지원사업, 상담/강의들을 개최하며, 위층은 취약계층 주거를 위한 주택이 운영

(주)나이즈의 주주 중 한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인보관 사업

- 지역주민들의 교류시설이자 취약계층 지원과 자립을 위한 린보사업(이웃사랑사업) 운영기관
- 린보사업은 일본복지법 20조에 따라 공설공영으로 운영되지만 오사카시는 자체 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마츠쓰꾸리 사업을 수행하던 (주)나이즈와 일반법인체, 휴먼나이즈협회 등에서 함께 하여 휴먼나이즈복지법인을 함께 운영중
- 특별고령자 시설, 어린이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 및 강의 등 사업 수행
- 주요사업 (a) 탁구,마작,사교댄스 등 서클활동 (b) 어린이주간활동 (c) 다방나비카페 (d) 지역주민 강의 및 강습 (e) 각종 이벤트
- 거주지원 : 2018년 1월 새롭게 시작한 생활근공자지원제도, 푸드뱅크를 활용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이 기회로 상담을 진행하며 자립지원을 위한 거주지원에 필요한 절차 안내로 시작 ex. 보증인이 없어 방 찾기가 어려운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보증인 연결
- 그 외, 후생성(노동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플랜 수립을 위한 이시나리지역 16개 분과 모임과 지역과제를 도출하는 역할 등 진료소, 복지회관, 고령자시설, 주거지원을 위한 아파트사업 등 미시나리 지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다양한 지원활동 수행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공원 지정관리와 같은 지역공공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와 약국, 대중목욕탕, 마을학교, 레스토랑 운영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 중임
- 환경복지사업부: 2009년 나가노공원 지정관리자로 선정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를 목표로 블로그 및 현장일기 등 매체 운영

- 나이스약국: 지역 복지·의료서비스 지원
- 지역개발사업부: 지역의 오래된 온천(대중목욕탕) 운영
 - a. 부동산사업부: 오피스, 맨션의 소유 및 관리, 특히 마츠쓰쿠리, 복지, 지역매력 등의 컨셉을 가진 건물 관리
 - b. 리폼사업부: 소형주택 상담부터 고령자·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주택사업, 증개축 및 설계관리 등의 수탁사업까지 마을의 다양한 사업을 해결하는 곳
 - c. 챌린지드: 복지용품점으로 개호 등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복지용품 판매 및 대여,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리모델링’ 사업
- 비영리부문생활지원실
 - a. 랍숙 운영: 학교 정기 수업 프로그램 운영
 - b. 커뮤니티하우스 하기 운영: 랍숙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
- 레스토랑, 식당 등
 - a. 레스토랑 ‘벨라 페이브’: 이탈리아 레스토랑
 - b. 쿠라시 식당 등: 지역 백반전문 식당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해 만든 주거공간 ‘브랑코트’ 전경 및 거실



고령자/장애인 지원을 위한 맞춤 설비들이 공간 곳곳에 구비





□ 시사점

- 엘 챌린지와 같은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하며 커뮤니티 형성
 - 관내 복지회관 건물의 청소용역을 (주)나이스에서 엘 챌린지와 연계하여 수행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및 직업훈련, 지역주민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가치기여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한국의 모 공유차서비스 기업이 초기 기업성장 과정에 자활기업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확장하고 자활기업에 세차서비스 제공받아 협력해왔던 기존의 계약관계를 끊어 사회적 이슈가 된 것과는 대조적인 경우라 더욱 인상적
 - 시설관리, 공간기획 및 운영 등 기능화 된 업무로 분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해결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시설과 자원연계를 고려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또한 인상적
- 주거 안정화가 되어야 가능한 자립지원책 연계를 위한 주택 중점 지원
 - 주거 안정화가 재일선의 문제해결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역자산화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 있음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운영을 고려하며 사업을 확대 중
- 청년그룹 등 새로운 계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용도의 주거지원 사업 역할
 - 슬럼지역 이라는 지역적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청년계층 유입 등 새로운 계층 수요를 끌어내는 주거공간과 일자리 연계 또한 고민

	NPO법인 쿠라시즈쿠리 네트워크 기타시바	브리핑 참석자 - 우즈하시(埋橋) 씨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72-720-6630 주소 大阪府箕面市萱野2-11-4 홈페이지 http://www.kitashiba.org/
---	---	--

□ 기관개요

○ 기타시바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활성화 활동

- ‘생활살리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NPO 그룹에 대한 지원
- 법인화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지원, 상담사업,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해서 모임의 터를 제공

○ 사업 창출을 돕는 인큐베이팅

- 사업을 열기 위해서 자금조달이나 활동거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사업자금을 조건에 맞추어 대부하거나 ‘지역에 환원시키는 것’을 대가로 사무실 공간을 싼 임대료로 일정 기간 임대

○ 중간지원단체(intermediary)로서의 기능

- 소규모 NPO, 시민활동의 중간지원단체로서, 자원봉사, 활동자금 제공자와 NPO간 연계 등 지원

○ 사업의 재정지원(펀드기능)

- 운영하는 펀드는 일정한 목적 아래 모여, 약관에 따라 사용
- 민간금융기관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NPO나 시민 활동에 대한 대출
- 지역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비전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계획

○ 기타시바의 마을만들기는 “부락해방 기타시바 마치즈쿠리 기구”를 통해 진행되다가 사업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2008년에 7개의 조직으로 분리

- ‘NPO법인 쿠라시즈쿠리 네트워크 기타시바’는 그 중 하나의 조직으로, ‘만남·연결·활력’을 테마로 하여 안심하고 사는 동네 만들기 활동을 진행
- 각 NPO의 직원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규모는 약 50여명
- 7개 합동 NPO의 활동은 지역 커뮤니티센터(인보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생활 지원프로그램, 시영주택 관리, 레스토랑 운영, 렌탈 프로그램, 리폼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수익금은 연간 약 2억¥ 규모기존 커뮤니티와 신규 참여를 모두 확대하는 커뮤니티 활동 모두 담고 있음

□ 주요내용

가. 기타시바지역의 NPO 설립 배경

○ 지역의 신분제에 대한 문제는 곧 인권과 빈곤에 대한 문제

- 에도시대부터 시작된 부락의 신분의 문제는 소작농, 일용노동자 등의 빈곤문제와 연계하여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가 과제였음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문제(노인 문맹, 청년교육)가 대두
- ‘빈곤 + 교육의 부족 + 무연금 저연금’ → 빈곤의 악순환 →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이 발생 하는 것이 핵심 문제

○ 주거환경 정비와 교육 지원을 요구

-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요구에서 부터 시작(판자촌 철거, 시영주택 건설 및 도로 정비 등)
-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 학력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금 요구

○ 마을 만들기에서 생활 만드기로 변화(1992년부터)

- 환경개선, 교육 지원 이후 학력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력수준이 낮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였음
- 눈에 보이는 지원 등은 있으나, 자체적인 만족감이 높아졌는가에 대해 회의적임
- 결국 일방적 요구는 의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스스로 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동의 방향을 변화하기 위한 활동 시작
- 특히 고베대지진에 의해 의식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재해민들의 지원운동이 시민 운동 전체의 운동으로 변화하는 계기

○ 지원금을 포기하고 실천적 방법을 찾음

- 60년대 부락해방운동의 요구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됨
- 그러나 언젠가는 수당이 끊길 것이라 생각하고 자립을 위해 수당을 스스로 거부 (노령연금의 수해자의 반대도 있었으나, 결국 반환)
- 대신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기로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
- 행정요구 의존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배식사업을 시작으로, 자활 고령자 일자리 연결, 문화적인 연계 정책, 자존감 높이기 사업을 위해 일본 북(고북기) 모임 만들
- 결국 2001년 NPO법인 생활만들기 네트워크 키타시바를 조성

<부락 문제>

- 피차별 부락: 중세(10세기경)의 천민을 기원으로 에도막부체제 속에서 “더러움, 인간이 아닌”의 마물로 인식됨
- 메이지 유신(1871년)에 ‘천민폐지령’ 신헌법의 제도 아래 평등하다고 선언하였으나, 부락을 기피하는 상황은 지속됨

<부락민에 대해 모호하나, 누구도 부락민으로 인식되고 싶지 않음>

- 오사카 인권문제 관련 조사 내용에 ‘누가 부락민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과거부터 살고 있는 사람, 부모가 부락민인 사람, 주소지가 과거 부락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등 부락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부락민으로 인식되고 싶어 하지 않음

나. 키타시바 지역의 NPO 설립 취지

○ 오사카부 미노시 가야노 지역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성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NPO 그룹을 지원, 사람과 사람, 조직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

-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만남 · 관계 · 건강"을 추구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공유하여 함께 지역 ‘생활 살리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키타시마 마을 전경

다. 「쿠라시즈쿠리 네트워크 키타시바」의 세부 활동 및 취지

○ 주요 활동

- 가야노: 노인 쉼터 , 어르신 낮시간 휴식 시설
- 마쓰가도 데이서비스: 점심값 지원
- 가야노: 병원 갈 때, 자전거 타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동서비스, 서비스 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건강상태(안비) 확인 역할
- 시바라꾸(시바: 잔디, 라꾸: 편하다, 오래간만에요 중의법): 스스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진행 (가구 만들고, 벤치 설치 등) 20대 청년 카페 설치 함께 아침식사 등 같이 모임 이벤트 추진
- 고복기 복모임: 일본 전통 복 관련 축제를 만들고 함께하는 참여 촉진

라. 지역관리 회사로서 키타시바의 역할

○ 눈에 나타나지 않는 지역 문제 발견

- 상당사업의 경우 생활, 경제, 주거 쉼터에 대한 바람 및 취직 연계와 적응위한 지원 필요, 취업 전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
- 체험을 통해 안심감,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지원하며, 미노시 일 부지역은 부유층이 살고 있어 지역 생활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으나, 실상은 안정적 거주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드러남
- 이를 위해 2011년 조성된 커뮤니티 하우스는 주거 문제를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일시적 거주 지원,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커뮤니티와 지역 문제를 연계

- 대부분의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은 ‘같이 먹자!’이며 이에 참여하는 세대는 다양함
- 아이들이 운영하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카페 등 먹거리 교류와 함께 같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조성
- 모이면서 교류가 깊어지고, 불참자의 근황에 대한 고민 및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계됨

○ 사회와 지역주민 연계 역할

- 지역화폐 마부는 지역의 일을 도우면 아이 중심이나, 어른도 받을 수 있음(10년을 준비한 상황)
- 마부로 방학 때 아이들이 밥을 사먹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 집안환경 유추가 가능함
- 지역사회와 연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일을 도움으로 마부를 받고 이를 쇼핑 물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미노시 전체의 쇼핑몰과 연계 스타벅스 등 140개)과 이는 지역 교류의 수단이 되었음
-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출발점 및 중간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개인과 기업의 활기를 북돋고, 교육 복지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역할, 빈곤의 악순환 및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만남을 지원하여 사회를 이어지게 만들

		
키타시바에 대한 소개하는 우즈하시씨	라이토피아21 1층 질의응답 중	지역과 주민의 연결자 역할

□ 시사점

○ 소통을 통해 숨겨진 지역문제 파악

-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등을 만들어 간 사례
- 특히 상담과 지역내 식사라는 정기적 만남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 지역주민 스스로 자립구조를 만들어간 사례

-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단기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시작 했지만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해서 자립구조를 만들었음
-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가를 고민하고 받고 있던 지원금을 포기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고민한 사례

○ 커뮤니티와 지역문제, 지역과 주민을 연계하는 매개체적 역할

- 함께 만나고 모이는 것으로부터 행정이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안정화 시키는 구조를 조성
- 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과 주민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는 구조 구축

○ 사람이 중심이 된 상호 네트워크 구조 만들기

-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이를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역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연결되는 지역 만들기를 실현한 사례

○ 지역관리형기업의 동기 및 지속가능의 좋은 사례

-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거창한 방법이 아닌 상호간 네트워크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

	사쿠라노소노 (벚꽃동산)	브리핑 참석자 - 장애인 제도 안내 : 마츠바나 - 상담지원 사업 안내 : 나가사키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992-0697 주소 大阪府守口市八雲北町3-39-8 홈페이지 http://www.rokoukan.or.jp/sakura/
---	--------------------------	---

□ 기관 개요

○ 벚꽃동산

- 장애인 지원센터
 - 주요 운영 내용: 장애인대상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방과후데이스터비스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소 운영: 빵, 쿠키 등 생산, 판매
 - 초등 방과후데이스터비스: 장애 취학 아동(초등 고학년) 대상 소규모 집단 활동으로 사회 참여 준비 지원
 - 입지 및 설립 특징: 모리구치시 북쪽 요도가와 하천 근처 위치, 목조 2층 건물, 2016년 4월 개소
 - 슬로건: 더불어 살며 더불어 일한다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로코칸

□ 주요내용

○ 일본의 장애인 관련 제도 안내

- 장애인종합지원법 중 적용 내용(일본사회복지협의회 정리 내용 기반)
 - 방문지원서비스: 초등 방과 후 지원, 휴일 및 방학지원 서비스, 성인의 경우 시설 통원 지원 및 재가방문서비스
 - 그룹홈: 성인이 된 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주택
 - 급여의 결정: 장애인이 처해있는 환경, 경제적 형편, 장애정도, 서비스에 대한 선호 및 필요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조사 또는 청취조사를 통해 법에 근거하여 알맞은 조건을 정함.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 및 서비스 양·지원 내용이 정해짐

○ 상담 지원 사업 안내

-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하여, 벚꽃동산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상담전문가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적절한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자
예) 휠체어를 타고 라이브 콘서트를 가고 싶은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상담지원절차: 장애인복지수급자증을 발급 받아야 함(공적복지서비스 제공필수요건), 장애의 정도와 상황에 대한 조사, 서비스 계획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계획서 작성, 장애복지과에 전달,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상담전문가의 필요성: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계획하면 좋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보호자에 의해 의견 소통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음. 상담전문가는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는 역할

○ 질의응답

Q. 케어매니저와 비교해서 자격, 훈련수준, 역량 강화 노력이 궁금하다.

- A. 기본적으로 케어매니저는 국가시험을 봐야한다.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와 비슷하게 현장근무도 있어야 하고 학교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상담지원전문가는 복지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연수를 받으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상담전문지원가 증명서가 있으면 될 수 있다. 여기 로코칸 법인에는 상담전문지원가가 총 5명이 있고, 국가 기준으로는 상담지원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5년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게 되어있다. 그 외에도 로코칸은 상담지원전문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통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각 지역별로 시, 구 상담지원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Q.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라이브 콘서트에 간다고 설정하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히 알려 달라.

- A.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티켓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으면 전화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전화번호를 같이 눌러주고, 거는 연습을 하는 등 예약 하는 걸 도와준다. 표를 끊는 걸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연계한다. 그러나 '티켓 값이 없어요'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티켓 값을 위해 어떤 자원을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도 지원자의 역할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티켓 값 10만원을 구해야 하면, 본인 티켓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같이 들어가려면 20만원이 필요하니 어떻게 마련할지 같이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는 것이다.

Q. 상담계획전문가의 인건비와 따르는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A. 어려운 과제이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개호보험이 적용된다. 개호보험은 케어 매니저 한 명이 고령자 35명까지 관할한다. 이에 비해 장애인은 상담전문지원가라는 지원 인력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다. 어떤 곳에서는 30명을 담당하고, 어디는 100명이상 담당하기도 한다.

Q. 상담계획전문가 배치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상담전문지원가에 대한 비용은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이 담긴 계획서가 기준이 된다. 한 장당 1만4,000엔에서 1만7,000엔으로 결정되며 배치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지역 차이가 크다. 행정에 상담지원전문가라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법인에 사회복지사처럼 두는 것이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아주 낮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개 하는 곳이 많지 않고 세이프 플랜이란 장치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상담계획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행정과 계획을 직접 짜는 사람들도 많다. 최저 한 개의 시에 최소 1명 정도의 상담지원전문가를 배치, 센터를 두도록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기관센터라고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 시사점

○ 커뮤니티 중심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실천의 의미

- 일본 내에서 노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 및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대상 상담 지원 제도 및 실천은 부족해보이나 지역사회 필요에 의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 정부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담지원전문가의 네트워크 및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필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었음. 현장 조직의 실천 의지로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한국에서도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 행정중심의 복지시설운영 사례를 넘어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지역 밀착도가 높고 민간 자생력이 높은 서비스, 활동 사례의 발굴·확산 필요

○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지역 내 사업을 발굴, 확장해 나가는 민간의 자발적 실천 사례로서 의미

- 사회복지법인 로코칸은 초기 주요 사업인 장애통합보육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성장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서비스, 성인이 된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장애인들의 수요와 필요사항이 있을 시 사업을 확

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의 노력이 돋보임.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계획 상담가를 고용하고 정기적인 연수 실시 및 네트워크를 맺는 등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 실천 조직의 운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같은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시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수한 실천 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 필요



벚꽃동산 전경



장애인 활동 안내



연수단 방문 간담회



장애인지원제도 설명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
육아플라자
(지역육아센터)

브리핑 참석자

- 오쿠노, 이쿠마 (육아교육담당 구 공무원)
- 히가시요도가와구 육아플라자 매니저

방문기관 연락처

대표전화 06-6327-5650

주소 大阪府大阪市東淀川区東淡路2-7-5, 4F

홈페이지

<http://www.osaka-kosodate.net/plaza/higashi-yodogawa/>

□ 기관 개요

○ 히가시요도가와구 육아플라자

- ‘육아플라자’는 차세대를 짊어 질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지역의 육아 지원을 위해 오사카시 24개구에서 시비 지원,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영아~초등 보육시설 및 가족 지원 위한 지역사회 오픈형 기관임
- 연수를 통해 방문한 히가시요도가와구는 24개 구 중 동북쪽에 위치하였으며, 24개 구 중 유일하게 구청 내(청사 4층)에 위치하여 아동 및 보호자의 육아 관련 고충, 민원 접수 시 빠른 응대가 가능한 특성이 있음. 또한 오사카시 내 이용자 수가 1위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음
- 대상연령: 0세~18세
-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9시~21시
- 운영내용: 영유아 대상 일시/휴일 보육, 부모참여 육아 워크숍, 육아강좌, 서포터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연령별로 구분하여 공간 운영), 아동 행동 지원, 가라데·발레 등을 하는 사회인(일반, 성인)에게도 개방
- 기타: 구청 내 본소 육아플라자 외 구내 지소가 17곳 있음

□ 주요내용

○ 육아 정보의 제공

- 히가시요도가와 구에서 육아서클이나 살롱,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에 관한 사회 자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육아 정보 제공
- 지역의 자주적인 육아활동 지원
 - 육아서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실시, 육아서클이나 살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육아활동을 활성화시킴
 - 지역의 육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육아 활동 지원을 위한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함
- 육아중인 부모 지원
 - 육아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강좌,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육아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내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응원
 - 클럽 활동과 자연체험 등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
 -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공간(놀이터)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놀 수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 그룹으로 육성
- 세대 간 교류 사업 실시
 - 영아와 유아가 사회와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옛날 놀이를 배울 수 있도록 연계
- 주요프로그램1: 만남의 광장
 - 대상자: 3세 미만의 영아와 그 보호자
 - 운영내용
 - 육아하는 부모와 자식의 교류, 만남의 장을 제공함
 - 육아 고민에 대해 상담함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육아와 육아지원에 관한 강습을 실시함

- 이용료: 무료(특정 행사에 한해 실비 필요)

○ 주요프로그램2: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 운영목적: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과 돕고 싶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서로 육아를 돕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실행
- 운영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등원 전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맡기는 것, 픽업, 아이가 아프거나 보호자가 아플 경우 긴급 상황 시 잠시 아이를 맡기는 것, 육아로 인한 피로로 자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것 등
- 운영방식: ‘아이를 돌보아 주는 회원(서포터)’의 가정에서 아이돌봄 실시, 원칙적으로 숙박은 하지 않음
- 대상: 아동은 3개월~10세 미만, 돌보미는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며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패밀리서포트센터 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보상: 1시간 기준 800~900엔(시간별, 요일별 상이). 의뢰 회원이 제공 회원에게 직접 사례 지불, 교통비와 식비 등은 실비로 청구

○ 시설 현황

- 경운동실: 부모와 영아의 일상과 놀이를 소중히 하는 ‘만남의 광장’이 개최되는 공간, 아동이 자유롭게 놀거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놀잇감이 상시 구비되어 있음. 사회인(일반, 성인)에게도 개방
- 도서관: 잡지나 만화를 읽거나 보드게임 등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 클럽 룸: 수유와 점심 식사 장소로 이용, TV나 비디오를 볼 수 있음
- 엔터테인먼트 휴게실: 육아지원 강습회 등을 개최하는 공간
- 음악실: 키보드, 기타 등 악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중학생 밴드 활동도 운영됨
- 집회실: 유아의 서클 활동이나 육아 강좌를 개최, 일시 보육실로 활용
- 요리 실습실: ‘자녀와 함께 과자 만들기’등 요리 교실 및 어린이 공작 교실 개최

○ 히가시요도가와구의 지역적 특성

- 입지요건: 오사카시에서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도심지까지 교통 연결로 직장에 다니기 편함. 오사카역이 있는 변화가 우메다와 교토 사이에 있음
- 자가소유: 오사카시 전체 자가 소유율은 40%이나 히가시요도가와구의 경우 27.5%임. 임대거주자 및 일시거주자가 많으며, 오사카시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도 함.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육아하는 가정, 고령세대가 많은 편이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음

- 출산 및 아동관련 현황: 1년에 1,400명이 해당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이 중 10대 출산은 21명 정도이며, 전체 한 부모 가정은 1,682집임(2015년). 출산아 중(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체중으로 출생한 아이가 연간 153명이며 아동학대 발생률이 작년 기준으로 오사카시에서 1위를 기록하여 153명으로 나타남. 상대적 빈곤률은 오사카시 전체 15.2%보다 3% 높은 18%로 나타남
- 기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침시간, 아침식사 여부, 자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자정을 넘어 잔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음. 또한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70%의 아동이 별로 없다 또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지역 아동들의 자존감이 높지 않게 나타남
- 결론: 이 같은 히가시요도가와구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수입이 낮은 가구가 많으며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은 지역임. 이에 출산 및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로코칸 등 우수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들과 어린이,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행정과 연계하여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 질의응답

Q. 이 같은 구의 현황을 기반으로 최근 신경 쓰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최근 5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세대의 어머니들에게 육아에 대한, 아이 키우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엄마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육아방법에 대해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발육 정도에 맞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30~50개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육아살롱'이라는 것을 시 내에 마련하고 있는데 시 곳곳 14군데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살롱에 가면 또래 엄마들끼리 잡담도 하고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어린이식당이다. 최근에 가족현황이 바뀔에 따라 일본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고립되어있거나 밥을 혼자 먹는다거나 해서 어린이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린이 모임장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에서 자원들을 모아서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민간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구청에서는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작년부턴 하고 있다.

Q. 히가시요도가와구 육아플라자가 다른 육아플라자와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가?

A. 어린이 육아플라자라는 것이 오사카시 24개구 각 곳에 있다. 각 장소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여기는 구청 위에(구청 내 4층) 위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오면 육아상담을 하면서 도출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구청 바로 밑에(1층 민원실) 내려가서 과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Q. 육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A. 특히 이 지역이 빈곤률도 높고 아이학대도 많다. 저희 플라자에 찾아오는 분들은 그나마 상황이 좋다. 안 찾아오고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걱정이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플라자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만큼 집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어린이집도 안가고 학교에도 안가는 등 추가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고립되지 않도록 참여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오사카시 전체 24군데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특히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이 심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수는 늘리고 있다. 갈수록 가정에서의 어머니 육아 지원을 해줘야하는 요구가 훨씬 많아진다. 낮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플라자에 오는데, 엄마랑 와서 시간을 보내는 가정은 그나마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집에 고립되어 있거나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혼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저녁밥을 혼자 먹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식당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침밥을 안 먹는 아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침을 마련하는 것을 점차 늘려 가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Q. 어린이식당에 오는 어린이 대상은 이용기준이 있는가?

A. 처음에는 부모가 저녁 식사를 안 챙겨주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이 온다. 어린이식당이 실제 식당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자기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을 여니 식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같이 와서 밥을 함께 먹자고 권하는 동네 아줌마의 말이나 분위기가 좋은 것이다. 참가하는 아이들 안에는 가난한 아이들 수는 많지 않고, 누구라도 격의 없이 오는 편이다.

○ 위탁 운영 법인

- 사회복지법인 로코칸



社会福祉法人路交館

- 활동이념: 장애인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야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학대아동 등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어린이와 어른들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
- 주요사업: 교육·보육(어린이집 및 육아플라자 운영), 장애아(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장애인생활지원센터, 사업소 등)
- 로코칸과 지역사회 간 연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사업으로 실현함.
지역에 있을 곳이 없다면 홈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된다는 발상으로 실현, 소외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함

배경, 지역사회 필요	사업시행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 내 유치원, 보육소의 입소거부	장애아 공동보육 개시
지역 내 상점가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 요청	야간 보육소 설립 (밤 12시 및 24시간 보육)
지역 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한 부모와 아이들 문제	지역 보육 센터 설립

- 로코칸의 시작은 '성애원 유치원'의 장애통합보육에서 출발: 1972년 7월, 장애아동 어머니 두 명이 당시 지역의 엘리트 유치원이었던 성애원 유치원의 문을 두드림. 이미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거부를 겪은 상황에서, 성애원 직원들 사이에서 한 달 가량 논의가 이어짐.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일단 해보자. 아이를 내팽개칠 수는 없다'는 합의를 토대로 엘리트 유치원의 간판을 떼고 두 명의 자폐증을 앓는 아동을 받아들임. '비장애아동에게서 동네 친구인 장애아동을 분리시키지 말자'는 신념을 토대로 지역공동보육소로 전환함. 보육소 운영을 위해 1976년 지역에 기반한 사회복지법인 로코칸을 설립
- 지역보육센터 초대 소장(1977)이었던 '스즈키 쇼조' 선생님은 "보육이란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며 교육이란 단순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이다"라고 보육과 교육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꾸린 결과 현재 직원 수 300여명인 법인으로 성장
- 인클루시브 교육(포용적 공생교육):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한 보육이 사실은 비장애아동, 가족에게도 중요한 보육이었음을 깨달음. 다양한 관점이 탄생함. 장애아를 학급의 일원으로 포함시켰을 때 직원들의 포용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고, 각자 가졌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상냥함이 드러남을 알게 됨. 포괄·공생 보육은 과정이 중요함. 혼합연령보육을 통해 아동의 비인지능력(스스로의 기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옴
- 성애원의 지역 활동

만남의 광장	지역의 보육 고립을 막기 위해 놀이, 상담 등의 파트너가 되어 보육을 지원함. 직원과 보육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	--

	보육 정보 교환 및 고민을 나누는 장소를 제공함.
육아 강좌	보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연 2~3회 부정기 실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하거나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작품을 만들며 부모끼리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센터 통신 발행	지역보육센터 조직 및 활동내용 전달(연 4회)
수영장·정원 개방	성애원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과 정원을 개방해 지역의 부모와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지역 축제에 대한 공헌	지역의 부모와 아이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로코칸 축제로 열리던 것을 지역 차원의 축제로 발전시킴

• 로코칸의 지역 활동 및 지역에서의 인정

후원회 활동	로코칸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원 조활동, 강연회 및 연구발표 활동, 기관지 '후원회 뉴스' 발행, 동창회 개최 등을 실시함
바자회 활동	'지역과 함께'라는 관점으로 바자회 활동
기타	장애인의 지역사회 청소활동 등

-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오사카시로부터 지역사회 기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히가시요도가와구 육아플라자 위탁, 등하원 도우미 및 방문돌봄사업 위탁 등을 전개

□ 시사점

○ 기관보육 외에 육아하는 세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일본에도 한국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지만 오전시간에 아이를 동반해서 참가하여 육아정보를 나누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강좌 등이 필요함. 워킹여부를 떠나 육아하는 어머니, 가정을 지역사회가 돕고자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가 필요함

○ 자생적인 힘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 위탁 운영을 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제도나 지원금을 뛰어 넘어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운영주체의 힘이 가장 중요함
- 오사카시 24개구에 개소한 육아플라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임에도 24개구에 정해진 예산은 동일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특히 육아에 고립된 어

머니)의 필요에 응답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법인의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운영주체의 실천이 돋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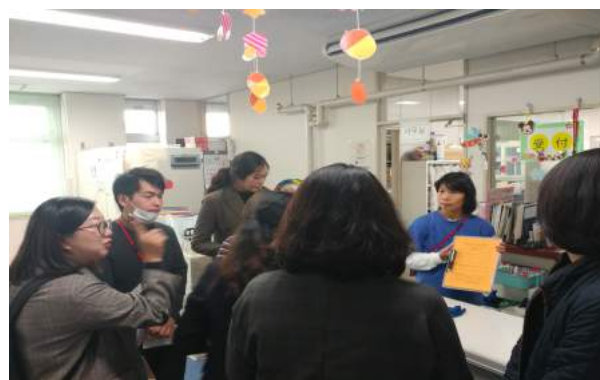
- 육아 고립 문제에 대해 ‘제도·사업’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여 현장의 실천주체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었음. 어린이식당 등 지역사회 아동들의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주로 움직이고, 시와 구는 주로 노하우를 안내하거나 적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음



육아플라자 입구



현관/런치룸



육아플라자 투어(이용등록방법 안내)



영아 보육실

III. 총평 및 방문소감

금번 전략기획 연수는 오사카의 상권, 지역복지, 돌봄, 도시재생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된 연수이다. 연수단원의 구성 또한 주제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민간기업, 비영리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 활동영역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연수준비과정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특강 및 방문지에 대한 자체 사전학습, 팀별 토론을 통한 사전질문 도출 등 사전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수기간 중 1일 3-4개의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연수처마다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등의 연계설명을 통해 해당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복지·도시재생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현장 조직과 활동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회고시간을 통해 방문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견한 특이점 및 추가질문사항, 우리나라 현장실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금번 연수를 통해 연수단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연수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사카 지역사회 현장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뿌리와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했던 주요도시와 기관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과 정책에 의한 곳보다는 정부지원이 없거나 지원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욕구와 필요에 근거하여 시민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추동하여 유지해오는 활동들이었다. 그들 안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왕성한 활동력이 가득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취약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인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가구 등의 문제해결 방법이 복지사업과 문제인식과 대상 면에서 맞닿아 있으나 추진방식과 주체는 복지영역만이 아닌, 사회적경제 방식(네트워크 및 지역 내 합자회사 등의 소셜 비즈니스)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생활지원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자립과 자조, 참여를 강조하는 실천이 근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상권활성화사업과 어린이식당 등의 연계사업추진,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양한 지역단체와 연합체로 주체를 형성한 구조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해당지역주민의 욕구 파악 및 문제에 대한 밀착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한 추진방식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복지·도시재생·돌봄 등 영역간 협업을 통한 조직형태 등 선택적 접근전략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방식의 돌봄, 도시재생, 복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간의 축적과 지역사회 내 리더(사람)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방문한

기관들의 공통점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견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내는 지역사회 내 영향력 있는 리더들과 그들의 리더십을 지원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와 기술의 확산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사회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해당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동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역량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넷째, 연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나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크고 작은 개별제도와 사업사례들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하였지만, 무엇보다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정책(제도) 사업들이 연계되어 상호협력과 보완으로 설계, 수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수 이후 본 연수단원들 또한 각자 지역과 영역을 넘어서서 협력하고 연계하여 변화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수단의 활동기록이 이후 오사카지역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사례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오정희

민간으로부터의 수요와 활동이 공공기관의 정책을 이끌어 내고,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인상 깊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위한 민관 협동과 생태계 조성까지 이끌어 낸 엘 챌린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와 자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 개발 등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전과 실행력이 결합될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국내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들 역시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의 니즈에 맞는 실행 방법들이 뒷받침되어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승훈

제도적인 면도 배울 것이 많았으나 시민의식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

첫째, 상점가진흥조합에서 중국인구의 4%만 비자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힐 때, 진취적인 상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영상통화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실제 노력들을 보며,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둘째, 여러 장애인 관련 시설과 현장을 보며,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배울점이 많았다. 장애인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평범한 일상에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제도는 수단일 뿐인데,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일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김명훈

1. 확신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 엘 챌린지의 대표이사 도미타 가즈유키가 말하는 엘 챌린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내 활력을 일으켜 위기를 극복할 것 이라고 제안했던 부도위기 회사의 대표가 현재 엘 챌린지 이사 중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지적장애인들이 가능하겠느냐는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본 빌딩관리협회에 하나의 회원으로 당당히 인정을 요구했던 일화는 도미타 가즈유키가 말하는 확신은 말뿐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었다.

2.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종합입찰제도 도입으로 과거 단순가격비교보다 낙찰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오사카부는 사회적 가치를 종합입찰제도로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활동으로 책임지는 세금이나 절감되는 장애인 보조금등을

수치화하여 직접적으로 과거 입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수치와 효율성으로 판단된 가치를 내세우며 종합입찰제도가 옳은 길로 가는 것임을 설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 이상건

<오사카부청 하트풀 오피스> 오사카부청 하트풀 오피스는 부청 내에서 우편서류작업, 문서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다. 이곳에는 16명 정도의 지적장애인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 부청 내의 각 부서는 하트풀오피스에 일감을 위탁한다. 하트풀 오피스는 마감 기일에 맞게 업무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지적장애를 가진 근무자들이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하는 스킬과 관계자원 그리고 사회경험을 쌓고 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엘 챌린지>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섹터에서 온 주요한 주체들이 공동의 아젠다를 놓고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을 흔히들 Collective Impact라고 말한다. 엘 챌린지는 장애인의 취업지원, 장애인제도 변화 등 사회적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특정한 주체가 아닌 공공, NPO, 민간 기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융합하여 변화시키고 있었다. Collective Impact는 진정한 민관협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NICE-Nishinari Inner City Enterprise> 니시나리는 ‘더럽고 무서운 곳’이라고 인식되었던 지역이다. 역사성에서 비롯된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그들의 생활환경과 맞물리면서 부락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NICE는 주식회사이면서 동시에 지역 운동을 하는 기업이다.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노숙자, 고령자 등에 맞는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개념이나 법적 틀거리에 대한 논쟁보다 현장을 통해 보여주는 기업이 NICE다.

■ 박승혜

연수기간 방문했던 상점가와 기관들, 그리고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제도들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도 이미 유사한 제도와 시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 박이수

자립성을 중시하는 오사카시 민간단체들의 결단과 사업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았으며 행정의 정책에서부터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현장과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가능한 것이 인상 깊었다.

■ 조수빈

일에 매몰되어 지내다보면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고 어떤 변화와 사회적 임팩트에 기여하는 일인지 무시로 잊은 채 관성적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잦은 업무이동과 이직을 해왔지만 근무월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매너리즘은 달리 극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사카 일본연수를 통해 기관들이 오랜 시간 사회적가치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일상과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고 또 한편 한국도, 서울의 다양한 사례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역량이 있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 조유성

‘로코칸’이라는 운동 조직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이 관과 밀접하게 연계될 때 지역사회복지가 얼마나 우수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들에게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통합보육문제와,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문제, 그리고 장애아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초등방과후서비스와 이후 성인에 대한 취업지원과 여가지원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산해내는 힘이 있었다. 지속가능한 힘의 바탕은 ‘지역사회에서 살아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담아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펼쳐내는 것’이었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구, 시에 제안하여 제도를 만들어내고 개선해 내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실천조직이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가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역사성과 운동성, 추진력을 가진 사회복지실천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로코칸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부족하더라도 육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위해 육아프라자의 문을 더 열어 많은 참여자를 수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교육연수 기회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마련하며, 법인의 설립이념과 중점방향에 대해 선후배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함께 해나가자는 의지를 이어갔다. 필요하지만 재원이 부족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법인 전체 차원에서 재원창출이 보다 가능한 사업 쪽에서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전용을 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로코칸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현재의 나의 일에도 적용하여 보다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되는데 반영해보도록 하겠다.

■ 최형선

초기에는 방문하는 사례지들이 국내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 개념의 지역관리기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이유는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거지의 지역 이슈의 가장 큰 부분은 주차문제와 쓰레기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거지의 재생사업 이슈를 이야기하자면 집수리 문제인데 이번 방문지역에서 인터뷰한 분들은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는 전문 영역으로 주민들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돌아보니 일본과 우리나라는 태생부터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문제를 풀기위한 기술적인 접근과 해결 방법만을 찾으려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고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를 바라 볼 때, 단순히 개별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관리 기업을 만들게 된 취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했던 노력,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닌 장기적인 접근 방식, 특히 사람을 키우는 것을 고민한 부분,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지역사회와 사람을 연계시키기 위한 활동들에 집중해야 했던 것이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역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어차피 지역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연수였다.

■ 홍진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현장방문은 위로부터의 쏟아져 내리는 정책과 뼈격거리는 민관거버넌스 사이에서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인 나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활동을 위해 무엇에 기반하여 움직여야할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의 잘 정돈된 인프라나 세팅을 기대하고 참여했던 내게 오사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인프라, 세팅, 속도보다 사람, 지역사회,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경제, 복지 인프라와 정책시스템에 대비하면 매우 더디고 체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의 끊임없는 토론과 실천을 통한 자생력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힘이 결국 일본의 사회적경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프라와 정책, 예산투입의 속도와 양 속에서 서울의 사회적경제 현장 또한 의존성과 정책속도에 맞춰진 프레임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오사카의 지역활성화와 지역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협업과 리더십이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되고 가능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Ⅳ. 참고

- 방문 기관 소개 및 현장 PT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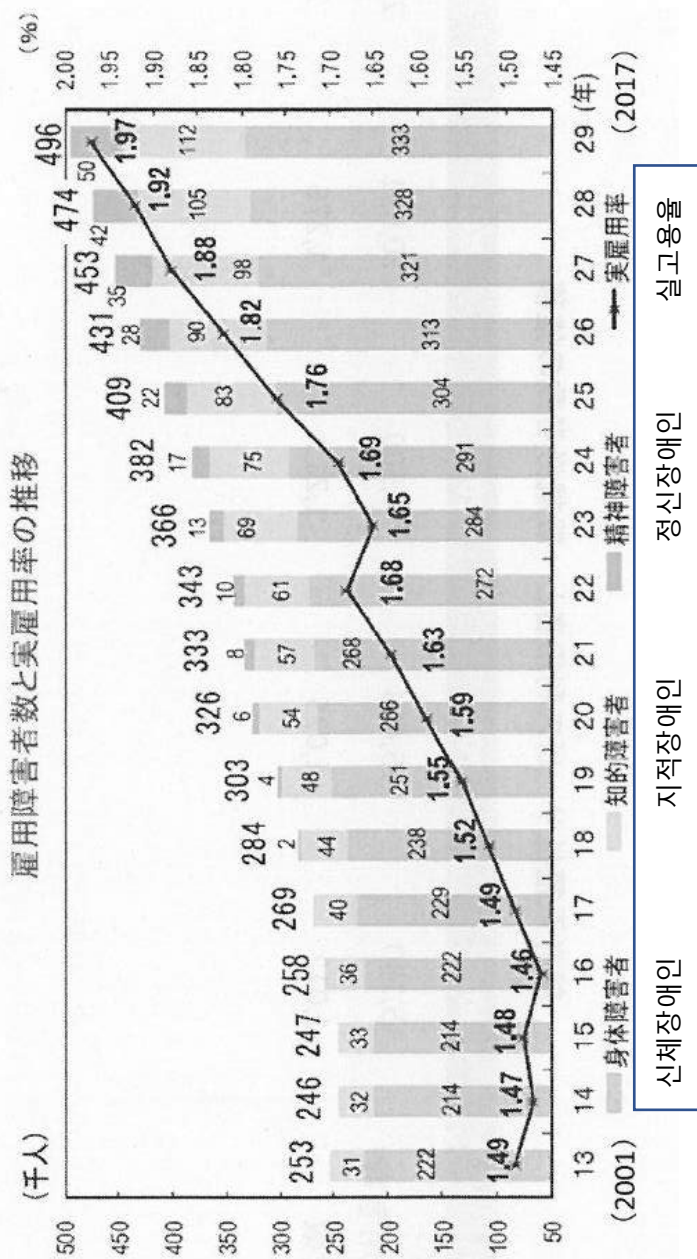
장애인의 취창업지원 오사카부의 사업 추진

오사카부(府) 복지부 장애복지실 자립지원과

인구		
일본		오사카부
1억 2,640만명		880만명

장애인수첩 보유자 수		
	일본	오사카부
신체장애인 수첩	519만명	39만명
요육수첩	101만명	8만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86만명	9만명
합계	706만명	56만명

고용장애인수와 실고용률 추이



법정고용률 추기			
1977~1987	1988~1998	1998~2012	2013~2017
1.5%	1.6%	1.8%	2.0%
			2.2%
			2.3%

취창업계열 복지 서비스 이용자와 일반 취창업자 수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창업계 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15,150	15,404	18,500	20,531	22,612
일반 취창업자 수	1,012	1,025	1,213	1,276	1,492

오사카부에서 “행정의 복지화”란

“행정의 복지화”란, 정부의 모든 분야를 복지라는 시점에서 총점검하고, 주택/교육/노동 등의 각 분야가 연계하여 시책을 새롭게 고안하거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의 부모 등의 고용·취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주된 추진 방안

고용·취창업 지원의 강화

- 취창업 지원 (청소 업무를 통한 취창업 훈련의 장을 제공, 청사 내 직장 실습 수용)



- 직장 정착 지원
 - 오사카부 소유 시설 청소업무에 관한 종합평가 입찰
- 취로 지원
 - 오사카부의 대처 (하트폴 오피스 추진사업, 공무노동에서 비상근 고용)
 - 민간에 의한 대처 (공공공사 발주 시 장애인의 고용·취업 촉진, 지정 관리 시 취창업관련자 고용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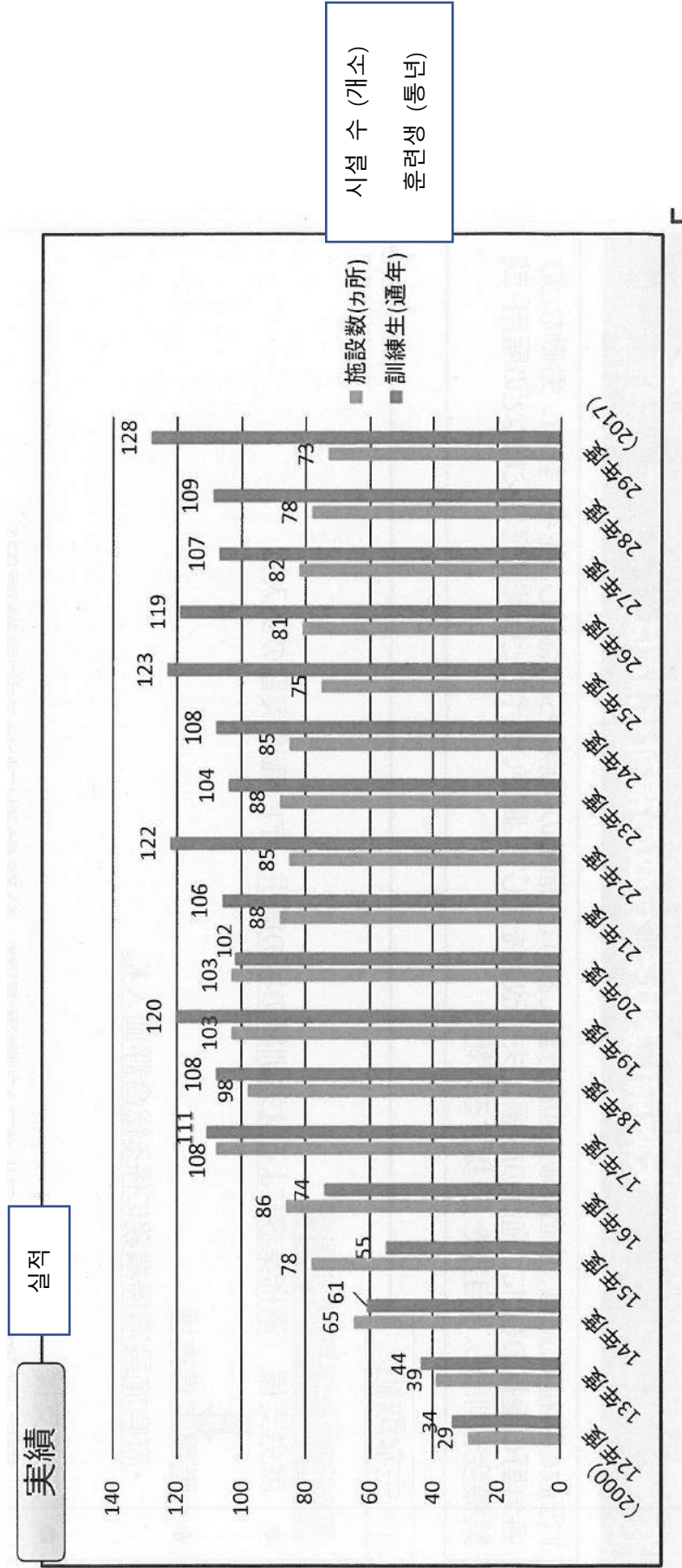
기존자원 등을 활용한 복지시책을 추진

- 오사카부가 운영하는 주택을 그룹 홈으로 제공
- 청내 공간을 활용한, 장애인 취창업 시설 등에서 제작한 제품의 판매기회를 제공
- 오사카부 장애인 우선 조달추진 방침에 기반한 물품 등의 구입 등.

대처 사례: 청소업무를 통해 취창업 훈련의 장을 제공

개요

- 2000년도부터, 오사카부가 소유한 시설 등의 청소업무 발주를, “오사카 지적장애인 고용 촉진 건물서비스 사업 협동조합(애칭: 엘.챌린지)”에게 취창업 훈련의 장으로써 제공하고, 지적장애인 등의 취창업을 지원하였다.



대처 사례: 오사카부 소유 시설 청소업부에 관한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

개요

- 2003년에 전국 최초 도입 사례로서, 대규모시설(WTO건물)에 대한 청소 등의 업무 발주 시, 평가항목에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의 어머니 고용 등의 항목을 넣어서 종합평가입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

오사카부 본청사 (사키시마청사 포함)

가도마 운전면허시험장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부립대학 나카모즈캠퍼스

오사카 급성기·종합의료센터

오사카 하비키 의료센터

오사카 정신의료센터

오사카 국제 암센터

오사카 모자보건 종합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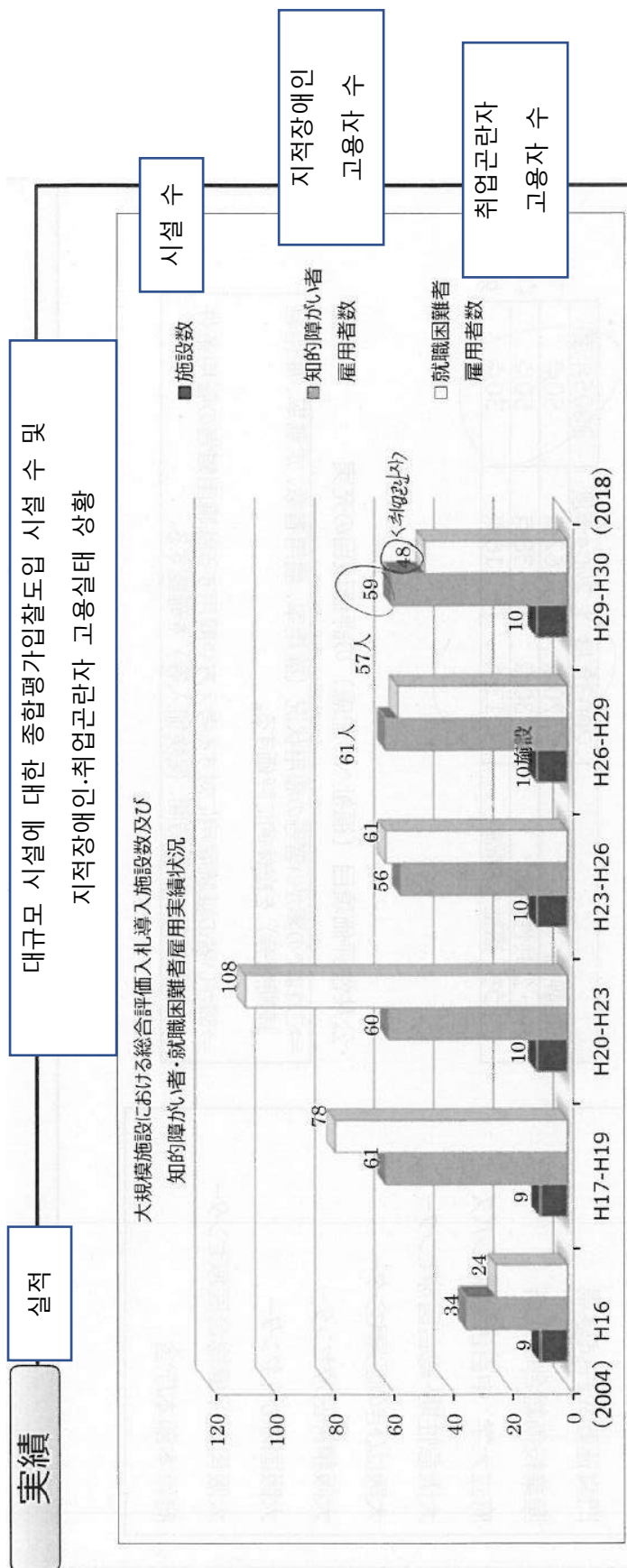
오사카부 경찰본부청사

· 공공성 평가 항목 (복지에 대한 배려)의 평가점 확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가격평가			
기술·공공성 평가			
그 중 복지에 대한 배려	70점	62점	50점
	30점	38점	50점
	13점	16점	30점

· 공공성 평가 항목 (복지에 대한 배려) 평가항목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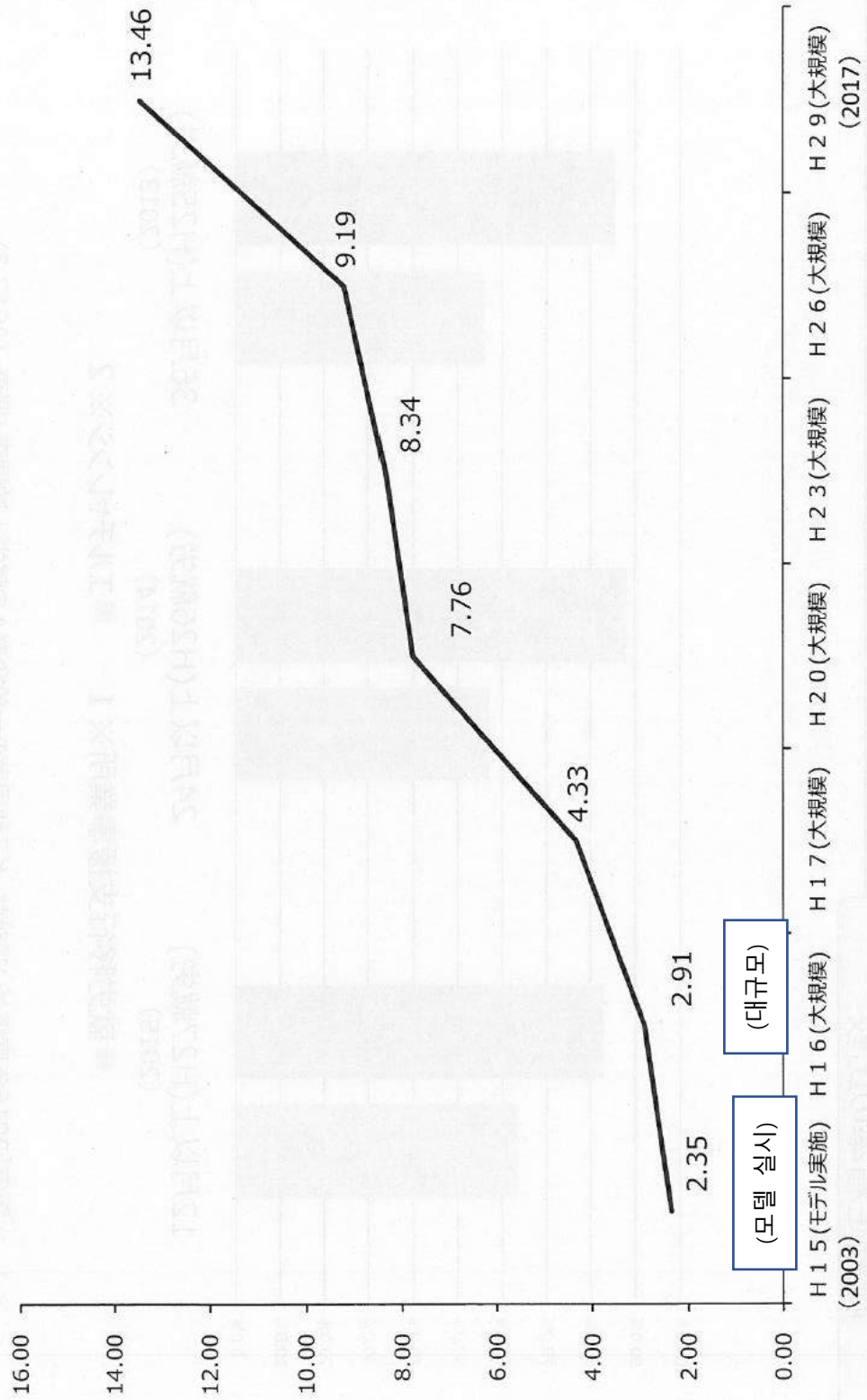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장애인 등의 고용 상황 (고용율, 고용자 수, 정착율, 고용지속 기간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 장애인의 지속고용에 대한 생각이나 고용하는 취업관리자의 고용조건 (근무시간, 근무시간, 보험가입 등)을 확인한다.



항목	연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 2008년도	2008~ 2011년도	2011~ 2014년도	2014~ 2017년도	2017~ 2020년도
시설 수 (개소)		2	9	9	10	10	10	10
지적장애인 고용 수 (명)		14	34	61	60	56	61	59
당해현장		14	34	44	45	46	46	49
당해현장 외		0	0	17	15	10	15	10
취업곤란자 고용 수 (명)		9	24	78	108	61	57	48
지역취업지원센터		9	7	25	34	32	33	35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		0	2	8	6	6	3	5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		0	3	1	2	0	0	0
홀리스 자립지원센터		-	12	44	66	23	21	8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	-	-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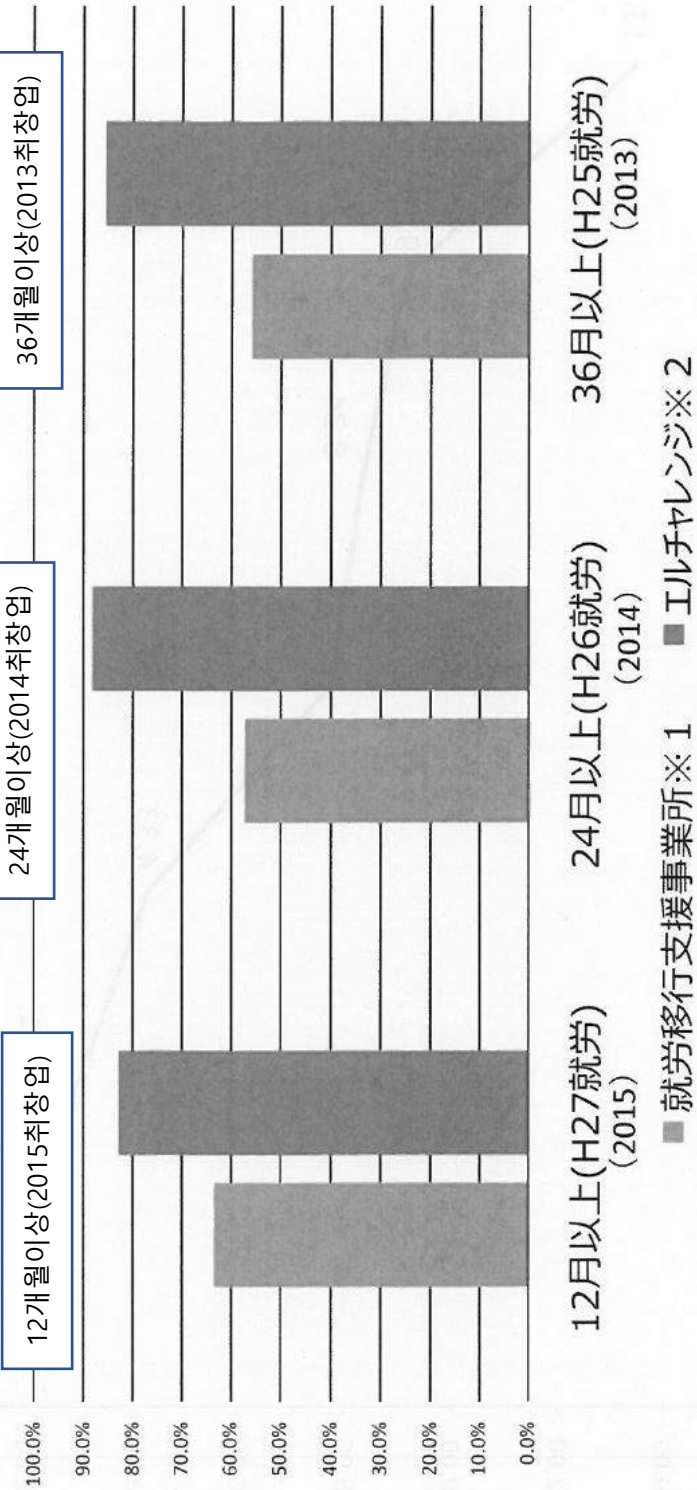
総合評価入札参加企業の障がい者平均実雇用率

종합평가입찰 참가기업의 장애인 평균 실고용율



職場定着率の比較

직장 정착율 비교



※ 1 大阪府「2016年度障がい福祉サービス利用者の一般企業への就労人数調査」調査 (2017.3)

※ 2 エル・チャレンジ調査 (2017.3)

※1 오사카부 "2016년도 장애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일반기업 취업일자수 조사" 조사(2017.3)

※2엘·챌린지 조사 (2017.3)

비용대비효과 시산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청사의 청소업무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기회 확보 등에 대해, 그 정책효과를 비용대비효과 면에서 검증하고, '행정 복지화'의 유효성의 가시화를 꾀함.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드는 경비 [A]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액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액과의 차액)와, 장애인이 취창업한 것에 의한 이익[B] (사회보장지급비의 삭감액 및 세금·사회보험수입의 증가액)을 비교.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경비 [A] > 장애인이 취창업한 것에 따른 이익 [B]	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없음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경비 [A] = 장애인이 취창업한 것에 따른 이익 [B]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경비 [A] < 장애인이 취창업한 것에 따른 이익 [B]	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있음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드는 경비 [A]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 건수와 일반경쟁입찰 건수의 낙찰율 비교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 건수에 일반경쟁입찰 건수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차액

장애인이 취창업한 것에 따른 이익 [B]

- 취창업 이행 지원사업·취창업 지속 A·B형 사업소·무직자·장애인 취창업(종합평가 안건)·장애인 취창업(일반)의 6가지 유형으로 장애인 1명당 1개월의 취창업 수입액, 사회보장비, 세금·사회보험료 수입 등을 시산하여, 행정비용과의 차액을 이익으로 계산.

사회보장지급비 - 세금·사회보험료 수입 = 행정 비용

費用対効果の試算

비용 대비 효과 시산

1년간 평균경비 [A]
약 5,400만엔

1年間の平均経費【A】
約5,400万円

1년간 이익 [B]
약 9,400만엔

1年間の利益【B】
約9,400万円

1年間の費用対効果
約4,000万円

1년간의 비용 대비 효과
약 4,000만엔

15년간의 비용 대비 효과
약 6억엔

15年間の費用対効果
約6億円

정책으로서의
유효성 있음

政策的
有効性あり

総合評価 一般競争入札にかかる経費【A】 < 障がい者が就労することによる利益【B】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경비 [A] < 장애인 이 취창업한 것에 따른 이익 [B]

기본이념

- '민도(民都; 민간이 주역인 도시(역자주))·오사카'는, 부(府)·부민(府民)·사업자 등이 협동하여,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유니버설 취창업 (한부모·장애인·생활공공자와 같은 취창업공관자들의 취창업)을 추진한다.

표창

- 부(府)는 한부모 등의 '취창업공관자'의 취창업에 공헌하는 사업자들을 표창한다.

중간지원조직 지정

- 한부모 등의 '취창업공관자'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부가 지정한다.

※지원 내용 (예) 직업훈련·직업영역 개척·취창업훈련·사업자와의 매칭·직장정착

공계약 등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 부는,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취창업공관자'의 취창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심의회 설치

- '종합평가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취창업지원비를 포함한 노무단가' 구상 (개념규정·적용범위나 구조 등), 표창 심사, 중간지원조직 지정과 그 외 유니버설 취창업에 관한 대처에 대해 심의를 하기 위해 심의회를 설치한다.

2011 Osaka Expo → 77344, 01022 52027

오사카 미나미의 도전
시대를 앞서는 미나미의 노력 유형에서 무형으로...

大阪ミナミの挑戦 時代を先取りしたミナミの努力 モノからコトへ

H29年(2869万人)

内大阪(1111万人)

2017년(2869만명)
그 중 오사카 (1111만명)

리먼 쇼크

リーマンショック

観光立国

オープンスカイ

ビザ緩和・免除

관광입국

오픈스카이

비자완화·면제

미국 테러·전쟁

역병 유행

米国テロ・戦争

疫病流行

バブル崩壊・経済低迷

(地方→東京)

버블 붕괴·경제부진

(지방 → 동경)

방일 외국인 수

万人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미나미의 사업 추진

ミナミの取組み

2007년

Union Pay 도입

2000년

"인재 육성, 지역 개발, 제품 만들기" + 문화 재구축

2000年 「人づくり・まちづくり・モノづくり」 + 文化の再構築

2007年

銀聯カード導入

2010년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카드 도입

2010年 多言語指差しシート導入

2017

"오사카 활성화 사업 실행위원회" 지역 DMO 선정

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2017年 「大阪活性化事業実行委員会」 地域DMO申請



Rock Climbing OSAKA JAPAN 2011 namBaHIPS CUP

2011/05/08

"힘내라 오사카" → "활기찬 오사카" → "오사카에서 활력을"을 슬로건으로 지정

상점회 · 기업 · 각종 단체 · 컨설턴트 · 호텔 · 철도 · 학교 · 상공회의소 · 오사카관광국 · 오사카시 · 오사카부

· 상점가 매력 발국 전문가 파견 (세미나, 상담회)

대상 (상점가 · 도매점 거리 · 소매시장)

· 관서 유학생 국제교류지원 (취창업·아르바이트·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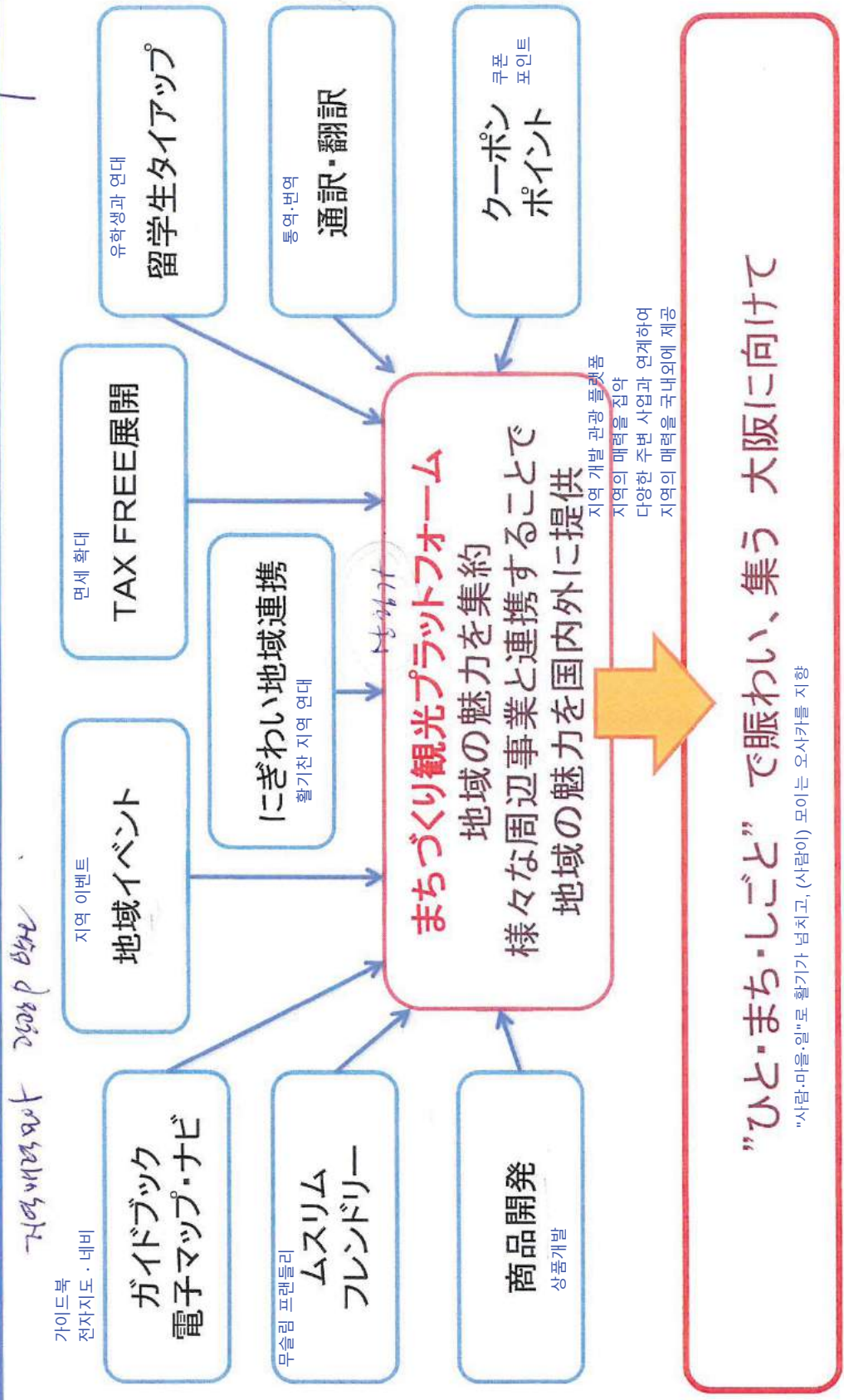
· 일본유산

· 관광앱 (다국어변환)

지역의 매력을 집약하고, 그 매력을 연계하여 발전

地域の魅力を集約し、魅力を連携発信

지역의 매력을 집약하고, 그 매력을 연계하여 발전



지역의 매력을 집약하고, 그 매력을 연계하여 발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엘 챌린지

오사카 지적장애인 고용총진 건물서비스 사업협동조합

조직개요

- ◎ 조합원 6단체 (하기 참조)
- ◎ 출자금 300만엔
- ◎ 출자금 오사카시 주오구 호엔사카 1-1-35
 전화 06-6920-3521 / 팩스 06-6920-3522
- ◎ 주요사업 건물서비스 공동수주, 취창업 지원사업, 고용총진사업, 공동광고,
 소모품 공동구매 등

■ 조합원 소개

단체명/대표자	사회복지법인 오사카 손을 잡다 육성회
소재지/연락처	오사카시 히가시나리구 다마쓰 2-11-28 2층 / 전화 06-6771-4390
개요	●1959년 오사카 정신박약아동 육성협회 (별명: 오사카 손을 잡는 부모 모임)를 결성. 1995년 명칭 변경 ●의료, 복지, 교육 취업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충실·강화를 꾀하면서 지역 속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며, 활동과 사업을 하고 있다.
단체명/대표자	사회복지법인 오사카시 손을 잡다 육성회
소재지/연락처	오사카시 덴노지구 다카쓰초 12-10 / 전화 06-6765-5621
개요	● 오사카지역의 지부, 회원으로 '오사카시 손을 잡는 부모 모임'을 결성. 1995년 12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오사카시 지적장애인 육성회'로 설립됨. ● 자립을 위해 필요한 원조나 보장, 지원 시스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단체명/대표자	주식회사 굿월 사카이
소재지/연락처	사카이시 이치조거리 11-25-301 / 전화 0722-32-2467
개요	● 1994년 4월 사카이시 장애인 취창업 촉진협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 ● 장애인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하자는 모토로 행정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중도장애인의 고용확보와 고용확대, 업무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명/대표자	주식회사 나이스
소재지/연락처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나가하시 3-6-33 / 전화 06-6563-1156

개요	● 1997년 5월 니시나리 지구의 주민참가형 지역 정비·개발 운동 중 에서 지역의 '생활', '고용',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처음부터 니시나리 지구 장애인 취창업 지원 센터·아스택과 파트너십을 연결하여, 장애인 취창업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 1998년 '장애인 고용 프로젝트'를 발족. 노인보건시설 등의 건물 서비스 업무를 개척하고 있다.
단체명/대표자	사회복지법인 정신장애인 사회복지회 촉진협회
소재지/연락처	오사카시 중양구 혼초 1-1-5-601 / 전화 06-6944-3592
개요	● 1976년 정신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재)정신병 회복자 사회복귀 원호협회를 발족. ● 1994년 현 명칭으로 변경, 부(府)민의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병행. ● 현재, 독자사업 '후레아이노사토'를 운영함과 동시에, 오사카부나 오사카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장애인 사회참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단체명/대표자	일반사단법인 엘·챌린지
소재지/연락처	오사카시 주오구 호엔사카 1-1-35 오사카시 교육회관 5층 / 전화 06-6920-3521
개요	● 2012년 4월 사업협동조합출자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사업소 (Social Farm)을 목표로, 장애인 취창업 이행 지원사업소를 개설. ● 2014년 4월 취창업 계속지원B형 사업소를 개설.

1. 탄생 경위

■ “일에 도전하자”

1999년 지적장애인 고용은 지지부진하여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불황 영향으로 해고나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갈 곳이 없는 장애인, 돌아갈 곳이 없는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1998년 오사카부가 실시한 '장애인 생활 니즈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인은 14.6% 밖에 되지 않고 그 전에 실시한 조사(1994년)과 비교하여 6.5포인트 감소 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체를 만들자'라는 뜻이 모였습니다. 이 때 주목한 것이 환경산업입니다.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이고, 업무·근무형태가 다양하여, 지역밀착도가 높아서, 청소나 건물 서비스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 업무가 많은 것도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사카부는 사카이시에 건설 중인 대형아동시설 '빅뱅' 청소업무에서 장

애인 고용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정책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수탁단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입각한 공익단체로서 엘·챌린지 설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오사카 지적장애인 육성회, 오사카시 지적장애인 육성회, (주)굿월 사카이, (주) 나이스 4개 단체로 구성된 사업체 '오사카 지적 장애인 고용촉진 건물서비스사업 협동조합'이 탄생하였습니다. 애칭은 '엘·챌린지 (일하다=Labor, 도전=Challenge)'로 하였습니다.

■ 업종적 중도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축으로...

협동조합이 '지적장애인 고용촉진'을 내걸게 된 것은, 지적장애인 지원에 특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대책이 소홀해진 지적장애인에 착안한 것으로, 소위 말하는 '업종적 중도'라 불리우는 장애인의 취창업 지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관에는 '지적장애인 등'이라 표현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는 정신장애인 취창업 지원도 추진하고, 2003년에는 (재)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촉진협회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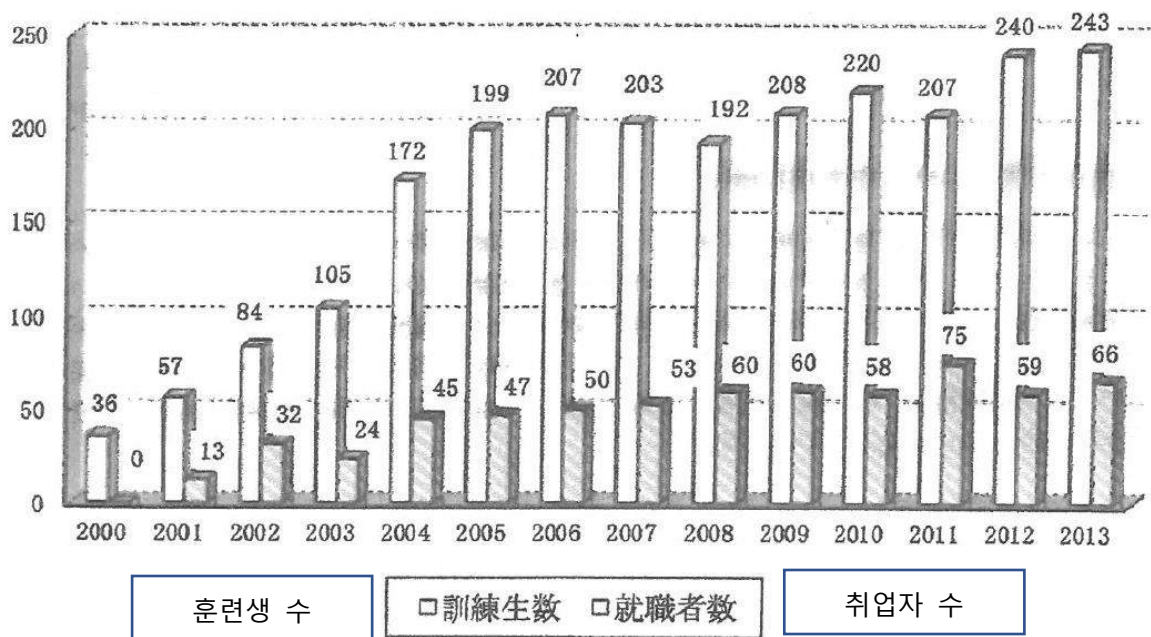
2. 지원 실태와 성과

■ 취창업 프로그램

엘·챌린지에서는, 취창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창업 체험 (단기체험형 훈련)', 일반기업 등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취창업 훈련 (연단위 훈련)' 일반기업에 고용, 정착을 지원하는 '취창업 지원'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약 600명이 취업을 실현

취창업 훈련을 통해 일을 하기 위한 스킬을 습득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실현한 훈련생은 약 600명에 이릅니다. 그 중 많은 인원이 훈련을 통해 습득한 청소기술을 살려서, 빌딩 클리닝 등의 직종에 취직하였습니다. 빌딩 보수 기업 외에는 병원, 특별양호 양로원(노인홈), 보육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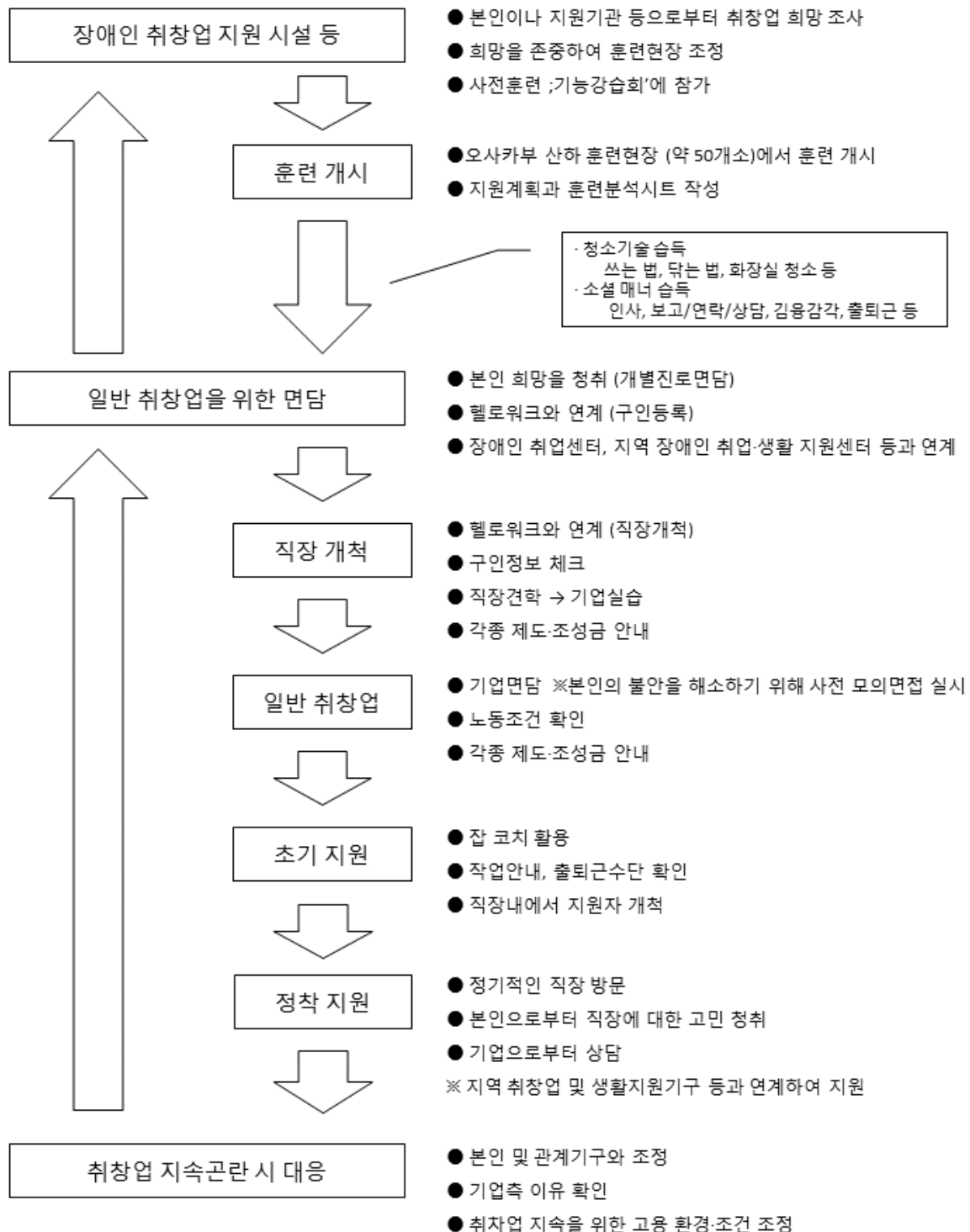


■ 훈련현장 수탁 건수는 50건

1999년 오사카 부립 대형아동관 '빅뱅'을 수탁한 이후, 연단위 훈련 현장의 수탁 건수는 약 50시설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소는 오사카 국제회의장, 주식회사 유·에스·제이, 오사카 부영 규호지 녹지공원, 사야마이케 박물관, 오사카부 교육센터, 오사카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학교, 국제 장애인 교류센터 '빅·아이' 오사카 산업창조관, 오사카 시립 오사카 풀장' 덴노지구청, 나니와구청, 니시구청, 오사카 부영 스미노에공원 등입니다.

■ 구체적인 취창업 지원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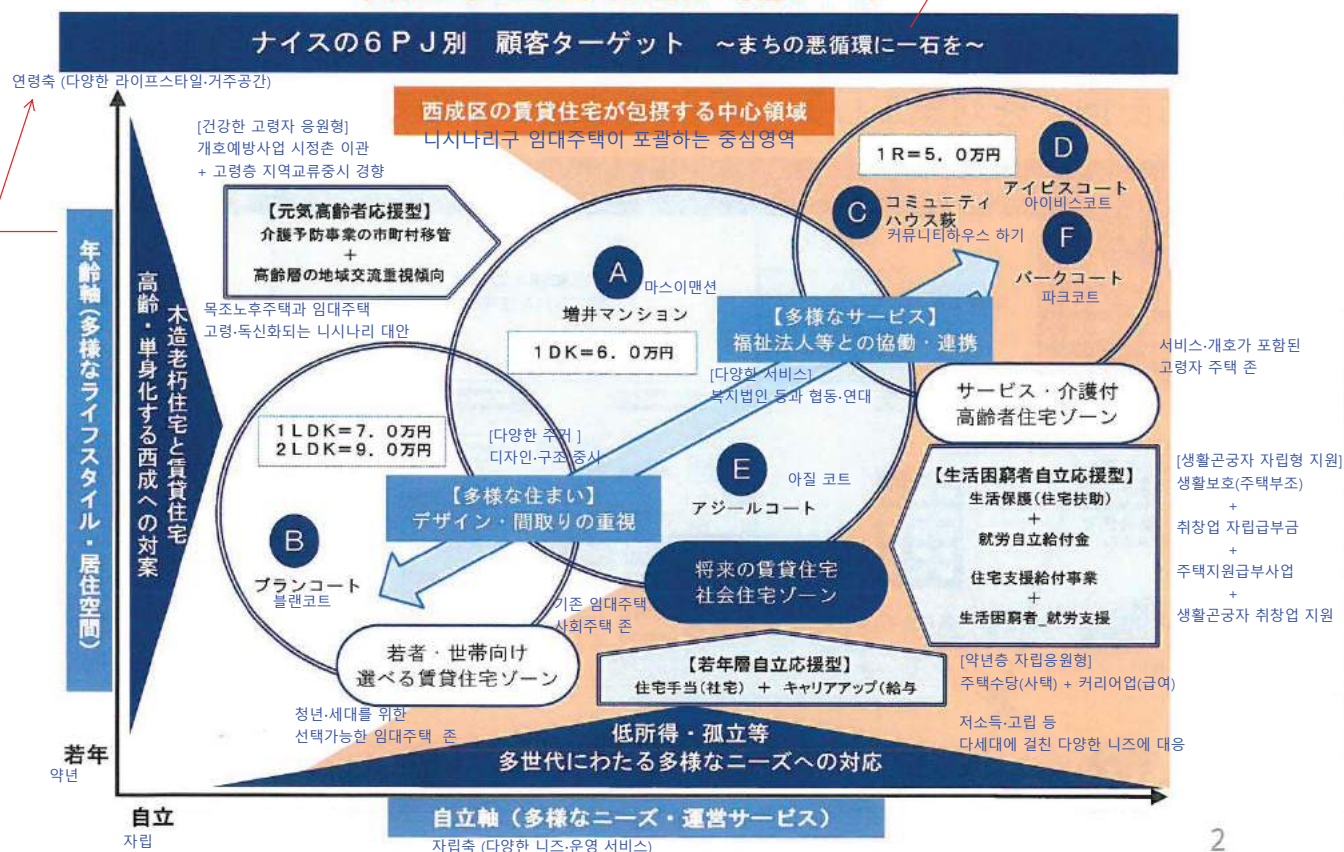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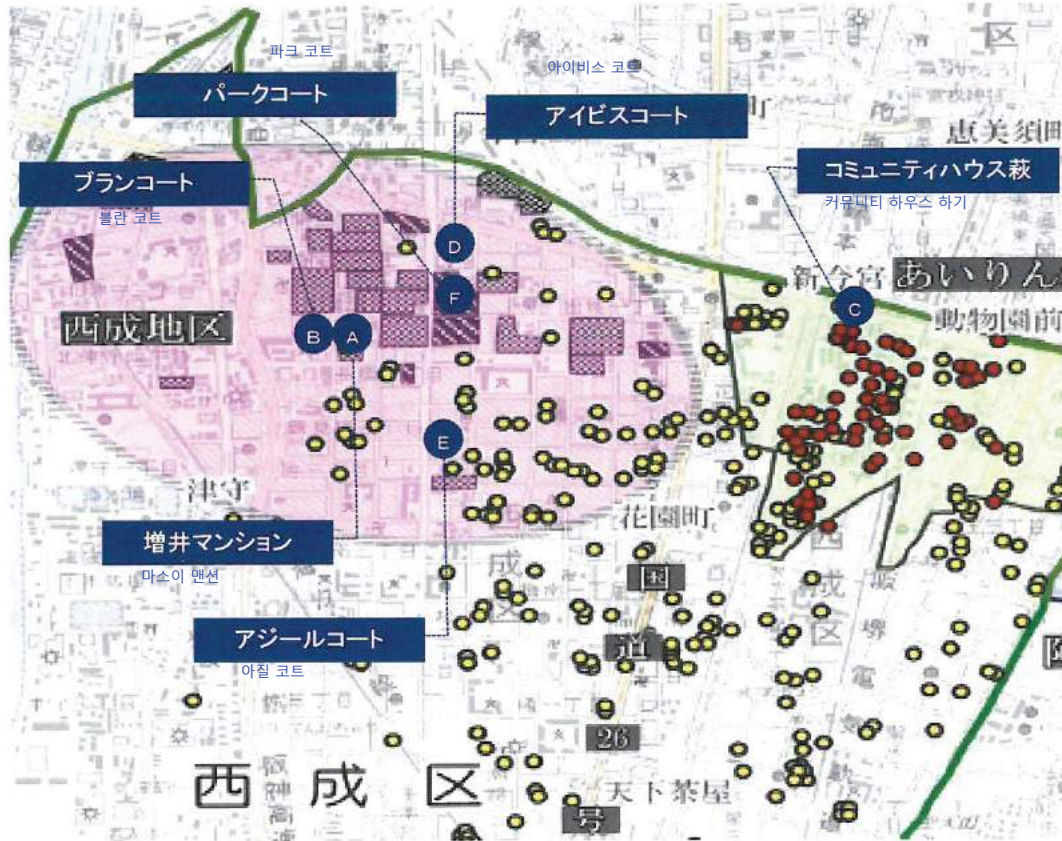
株式会社ナイスの取組
www.nice.ne.jp/

주식회사 나이스
지역개발사업부

나이스의 6PJ별 고객 타겟
~ 마을의 악순환을 끊자~

새로운 생활을 그리면서
新たな生活を思い描いて





3

민간 노후주택 재건축 지원사업 개요

民間老朽住宅建替支援事業 概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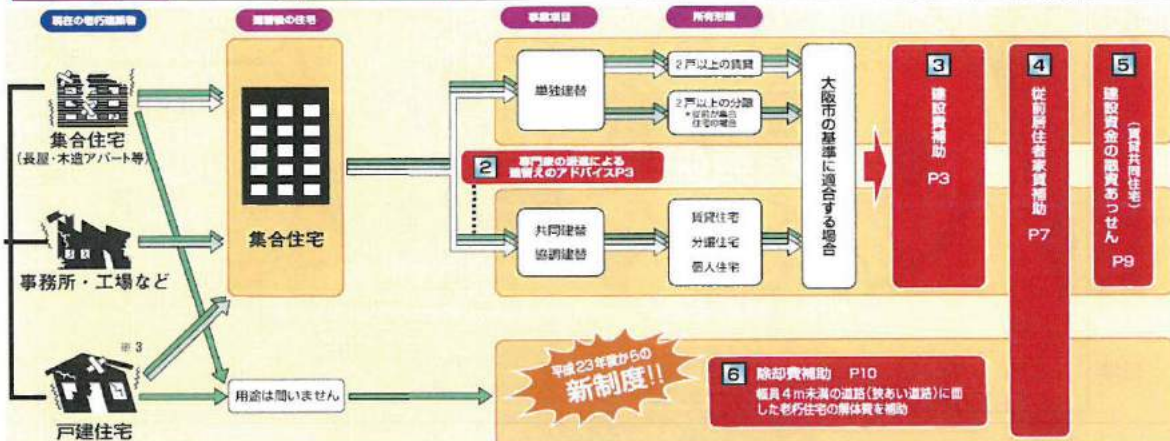
방재라는 관점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밀집주택 시가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시 단독으로 우대 (정부 사업과 별개)

防災の観点から、「特に優先度の取り組みが必要な密集住宅市街地」を対象エリアに国とは別途市単独で優遇。

사업항목 재건축 후의 주택 대상 지역 목조 철골구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事業項目	建替後の住宅	対象エリア	木造	鉄骨造 コンクリートブロック造	鉄筋コンクリート造 鉄骨鉄筋コンクリート造
単独建替 共同建替 協議建替	集合住宅 공동주택	一般エリア	일반 지역	昭和56年以前に 建てられた住宅 (※1) 1981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	築32年以上 経過した住宅 (※1) 준공 후 32년 이상 경과한 주택
		アクションエリア	액션 지역		
		優先地区	우선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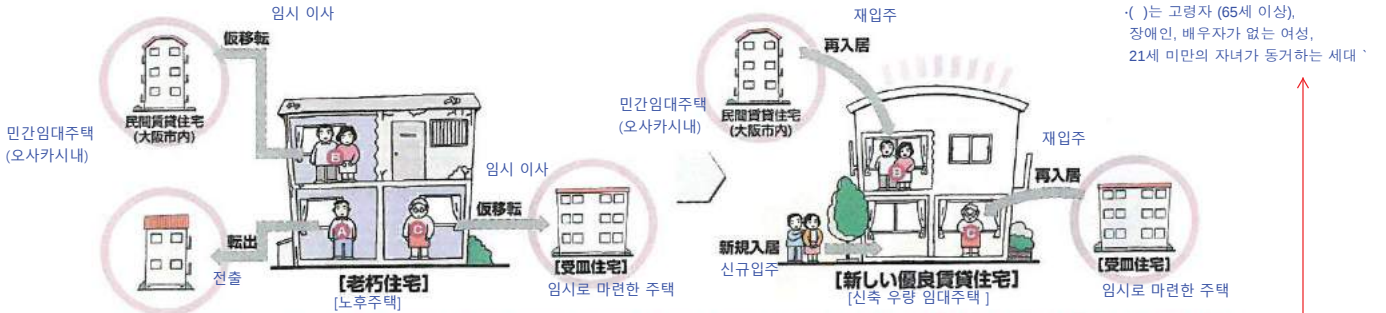
단독 재건축
공동 재건축
협조 재건축



4

「家賃助成付き」住み続けるために → 원세 (원주)

【建替をスムーズに】 [재건축을 매끄럽게]
 재건축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건축 후에 주택 월세를 보조
 建替住宅に2年以上居住していた方を対象に、
 建替後の住宅家賃を補助



- A** 시내 민간임대주택에 전출
 市内の民間賃貸住宅に転出
 差額の1/2 (2/3) 以内 [月額上限 2.5万円 (3.5万円)]
 5年間 (7年間)
 차액의 1/2 (2/3) 이내 [월 상한 2.5만원 (3.5만원)]
 5년간 (7년간)
- B** 시내 민간임대주택에仮移転
 市内の民間賃貸住宅に仮移転
 仮移転中
 最長2年間
 差額の1/2 (2/3) 以内 [月額上限 2.5万円 (3.5万円)]
 最长 2년간
 차액 1/2 (2/3) 이내
 [월 상한 2.5만원 (3.5만원)]
- C** 受皿住宅に仮移転
 受皿住宅に仮移転
 임시로 마련한 주택으로 이전
 5년간 (無期限)
 차액의 1/2 (2/3) 以内 [月額上限 2.5万円 (3.5万円)] [월 상한 2.5만원 (3.5만원)]
- ※現在、高齢者再入居も7年となった
 ※ 현재는 고령자 재입주도 7년으로 변경됨.

마스이 맨션 ~ 더 이상 탄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요~

増井マンション ~もうどこに行かんでもいいよ~

28m² 1DK 6.1万円 既存建替家賃補助モデル 기존 재건축 월세 보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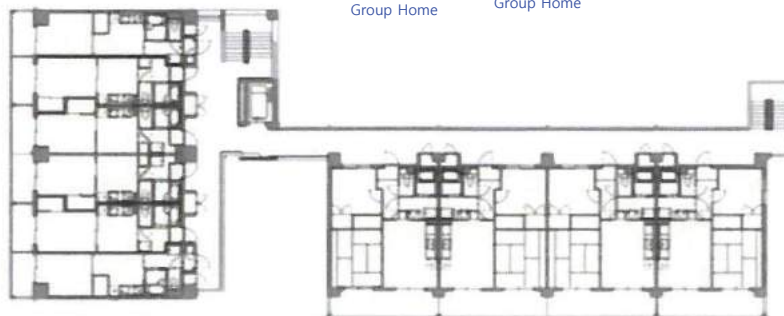
(外観) (외관)

7F	賃貸住宅 (4室)	임대주택 (4실)
6F	賃貸住宅 (4室)	임대주택 (4실)
5F	賃貸住宅 (10室)	임대주택 (10실)
4F	賃貸住宅 (10室)	임대주택 (10실)
3F	認知証GH 賃貸住宅 (9室)	임대주택 (9실)
2F	障がい者GH 賃貸住宅 (11室)	임대주택 (11실)
1F	店舗 駐輪場	주차장

인지증 Group Home

장애인 Group Home

(建物構成) (건축구성)



(標準階平面) (기본 평면도)

‘가족용’ 도시형 디자이너즈マンション
블랜 코트 ~청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ファミリー向け」都市型デザイナーズマンション ブランコート ~若者に選べる住宅を~

40m² 1LDK 6.8万円 新婚世帯向けモデ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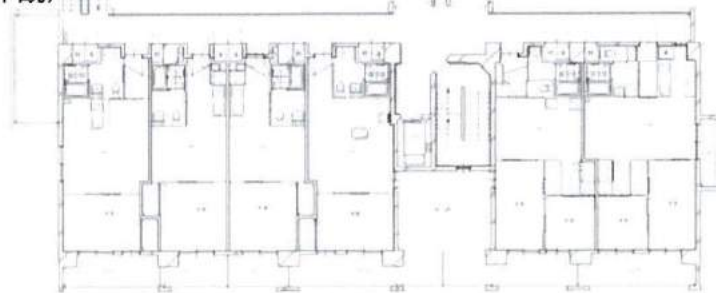
신혼 세대형 모델



(외관) (외관)

10F	賃貸住宅(4室)	임대주택 (4실)
9F	賃貸住宅(5室)	임대주택 (5실)
8F	賃貸住宅(5室)	임대주택 (5실)
7F	賃貸住宅(5室)	임대주택 (5실)
6F	賃貸住宅(5室)	임대주택 (5실)
5F	賃貸住宅(6室)	임대주택 (6실)
4F	賃貸住宅(7室)車イス対応フロア	임대주택 (7실), 휠체어 대응 플로어
3F	障害者グループホーム	장애인 Group Home
2F	教育関連事業フロア	교육관련 사업 플로어
1F	レストラン 歯科医 駐車場	레스토랑 / 치과 / 주차장

(建物構成) (건물 구조)



(標準階平面) (기본 평면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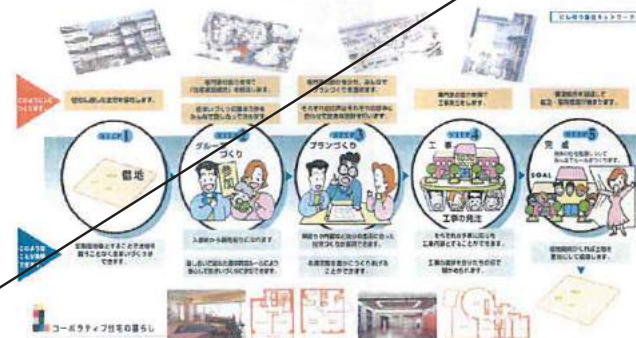
‘정기차지권(定期借地権) 포함’ 조합주택
하모니 빌리지 ~시 소유지 첫 정기차지권 코포~

정기차지권: 당초 설정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관계가 종료되고, 갱신을 할 수 없음.

「定期借地権付き」コーポラティブ住宅 ハーモニービレッジ ~市有地初の定借コーポ~



竣工年: 2001年7月
敷地面積: 666㎡
延床面積: 982㎡
構造・階数: 鉄筋コンクリート造3階建
土地: 大阪市 (定期借地権50年附)
戸数: 7戸



こんな夢が実現しました
ハーモニービレッジ

集まったからこそ
できること!

- 太陽光発電
- 水利用
- ゴミ分別
- 共有ガーデン

自分たちの暮らしに合わせた
住まいづくり!

- パジャマラウンジ
- 多目的スペース
- 屋根付きトップライト
- ロフト

ハーモニービレッジ

所在地: 大阪市東淀川区東中島1-13-3
敷地面積: 666.29㎡
延床面積: 982.17㎡
構造: 鉄筋コンクリート造
階数: 3階
戸数: 7戸
完成年: 2001年



8

「NPOと同居する」釜ヶ崎福祉住宅 コミュニティハウス萩 ～支援と居住空間のバランスを～

'NPO와 동거' 가마가사키 복지주택
커뮤니티 하우스 하기 ~지원과 거주공간에 밸런스를~

18m² 1R 4.7万円 生活保護高齢者向けモデル

생활보호 고령자 모델



(外観)

(건물 구성)

(建物構成)

10F	高齢者賃貸住宅(6室)	
9F	高齢者賃貸住宅(6室)	
8F	高齢者賃貸住宅(6室)	
7F	高齢者賃貸住宅(6室)	
6F	高齢者賃貸住宅(6室)	
5F	高齢者賃貸住宅(6室)	
4F	障がい者グループホーム	高齢者賃貸住宅(1室) 高령자 임대주택 (1실)
3F	障がい者グループホーム	장애인 Group Home
2F	アフターケアセンター	애프터 케어 센터
1F	共用スペース	事務所 介護事業所

고령자 임대주택 (6실)

장애인 Group Home

공용 공간 / 사무실 / 개호사업소



(標準階平面)

(기본 평면도)

9

'지역 개발, 인연/역할을 제안하는' 복지주택
아이비스 코트 ~고령자에게 인연과 역할 연출을~

「まちづくりエンアパートメント」福祉住宅 アイビスコート ～高齢者に縁と役割の演出を～

25m² 1K 6.1万円 サービス付高齢者向けモデ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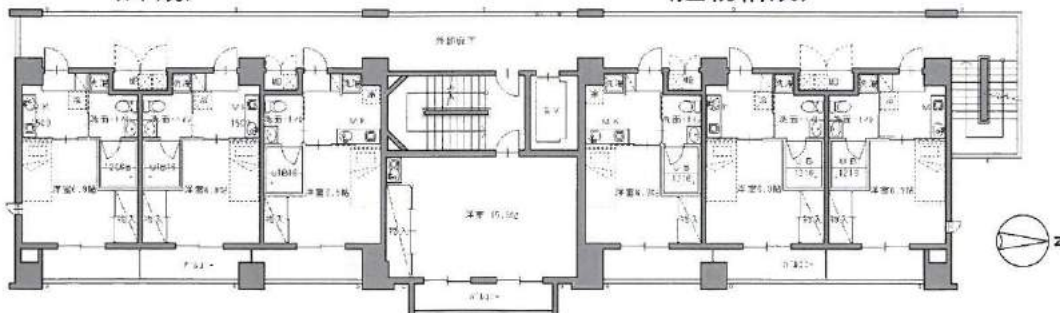
서비스가 포함된 고령자 모델



(外観) (외관)

8F	高齢者住宅(6室)	고령자 주택 (6실)
7F	高齢者住宅(6室)	고령자 주택 (6실)
6F	身障者グループホーム	신체장애자 Group Home / 고령자 주택 (2실)
5F	高齢者住宅(6室)	고령자 주택 (6실)
4F	高齢者住宅(4室)	고령자 주택 (4실)
3F	認知証グループホーム	인지증 Group Home
2F	認知証グループホーム	인지증 Group Home
1F	店舗	共用スペース 介護事業所

(建物構成) (건물 구성)



(標準階平面) (기본 평면도)

10

‘특별 양호 양로원과 구분소유’ 다목적 주택
아질 코트 ~일하기 시작, 거주 시작 은 니시나리에서~

「特養と区分所有」の多目的住宅 アジールコート ~働き始める。住み始める。は西成で~

28m² 1DK 6.1万円 単身勤労者向けモデ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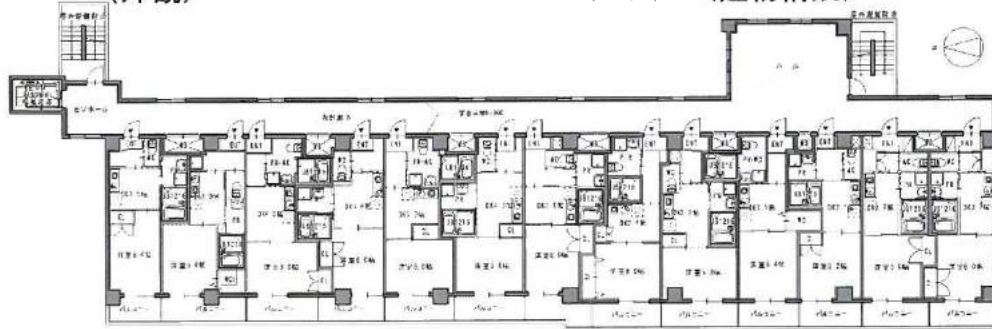
단신근로자 모델



(外觀) (외관)

6F	賃貸住宅 13戸			임대주택 13호
5F	賃貸住宅 13戸			
4F	ケアホーム	賃貸住宅 7戸		케어 홈 / 임대주택 7호
3F	サテライト特養			특별 양호 양로원 분관
2F	サテライト特養			특별 양호 양로원 분관
1F	駐輪・駐車場	サテライト玄関	店舗	

주륜·주차장 / 양로원 현관 / 점포



(建物構成) (건물구성)

(標準階平面) (기본 평면도)

11

「民設民営隣保館」のある多目的住宅 パークコート ~居場所をつくる~

‘민설민영 인보관’이 있는 다목적 주택
파크 코트 ~거처를 마련~

民設民営隣保館と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28m²)、
インターナショナル保育所でシェア

민설민영 인보관과 서비스가 포함된 고령자 주택
인터내셔널 보육원과 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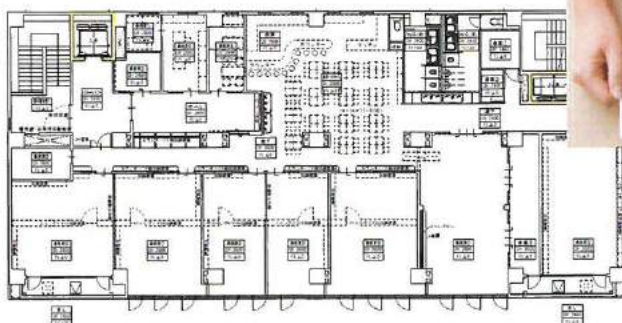


(外觀) (외관)

주륜·주차장

6F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12個			서비스가 포함된고령자 주택 12개
5F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12個			
4F	サービス付き高齢者住宅 9個			
3F	インターナショナル保育園			인터내셔널 보육원
2F	活動スペース(隣保館)			활동 공간 (인보관)
1F	駐輪・駐車場	コミカフェ(隣保館)		커뮤니티 카페 (인보관)

(建物構成) (건물구성)



(3階平面図)

(3층 평면도)



12

にしなり隣保館 ゆ〜とあい コンセプト



この街が好き。
にしなりの街の
みんなの居場所



おいしいご飯が食べたくなったとき
通かと思がしめないとき
歌いたい、踊りたい、運動がしたいとき
新しい夢を始めるとき
知りたいたいとき、学びたいときがあるとき
ゆっくりしたいとき、ほっとしたいとき
あったことあるとき...

「スマイルゆ〜とあい」は
様々なひとが、で、あ、ひろがる
にしなりの街のみんなの居場所です。

思い立ったが吉日はのぞいてみてください。
いつでも笑顔いっぱいでお待ちしています。

さあ！自分の身体と運動です 運動スタジオ

ヨガ、ヨガ・介護予防体操、太極拳、ダンスなどの各種教室を開催。汗を
かくて健康促進もよし、運動を楽しむもよし、ダイエットも効果あると思
いかもしれません。希望としてご利用いただけます。運動教室
の開催は、サークルの集まりに支えられ、あなたの健康に役立ちたい方
が参加です。(※スタジオ・7)



学びあい、情報交換 スキルアップの講習・講座

「ゆ〜とあい」学びあいの目的は、「やってみようチャレンジ
精神」を醸成し、新世代が活躍の場を、スマイルプロジェクト
の発展、企業を育てる人財の育成企業支援活動、ベ
ットのしつけや家庭環境を学ぶプログラムなど幅広い学びの
場をの提供し、新世代のニーズに応えることとします。(※スタジオ
2、3、4、5)



子どもが学び、遊べる居場所

放課後や休日の時間、子ども達の居場所を開設しています。宿題やテスト
対策など「学ぶ」と同時に、「遊ぶ」ということも活動が中心です。



「困った」時に頼れる人がここに居ます

子育て、教育、福祉、仕事、住まい、人権など、困った時は何でも相談ください。必要に応じて専門機
関へ誘導するなど、ひとりひとりのニーズに応える相談窓口がここにあります。



さまざまな個性が、で、あ、ひろがる コミュニティカフェ

通りに面したガラス張りのカフェでは、リーズナブルなメニューやラッ
カフェメニューを販売しています。昼食、軽食、スイーツや季節限定メニューなど、
子どもやファミリー層のイベントなどにも活用。ここちよいと過ごしたいとき、
空想の中、ほっとするひととき、新し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生まれる。皆
を結ぶと交流と情報交換の場です。

クッキングスクールや教室にも使える キッチンスペース

カフェのオープンキッチンには、食器、調理器具、食料品などを
た料理や、様々な国の料理、食卓のコーディネートなど、
様々な料理教室を開催します。また、講座としてキッ
チン教室も開催予定です。



カラオケ好きや、未来のミュージシャンへ 音楽スタジオ



- ・月謝を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 응원실
- ・홈리스나 생활곤궁자를 응원하는 생활 응원실

「家賃を払ってもらえるように支援する」くらし応援室

・ホームレスや生活困窮者を応援する くらし応援室。

상담



그래도, 노숙, 도주를 반복하는 사람들
 홈리스는 '일'과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님.
 '집'이 없는 사람들임.

学び

배움

毎週土曜日 18:30~
 参加費: 1000円(夕食付)

매주토요일 18:00~
 참가비: 1000원 (저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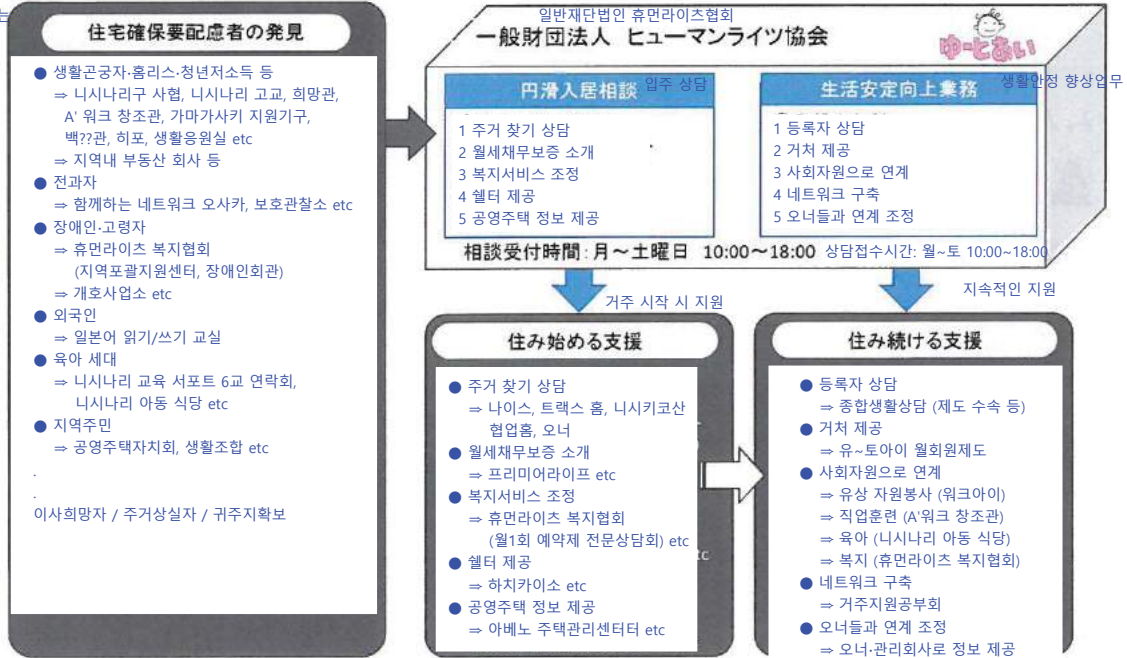
유~토아이 + 생활응원실 ⇒ 거주지원법인
 2018년 1월 유~토아이가 거주지원단체로
 1 발견 → 2 입주 → 3 생활 향상 →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

ゆーとあい+くらし応援室⇒居住支援法人

2018年1月 ゆーとあいが居住支援団体に

①発見→②円滑入居→③生活向上→このまちで「ずっと」住み続けれる支援

주택확보를 필요로 하는
 배려자를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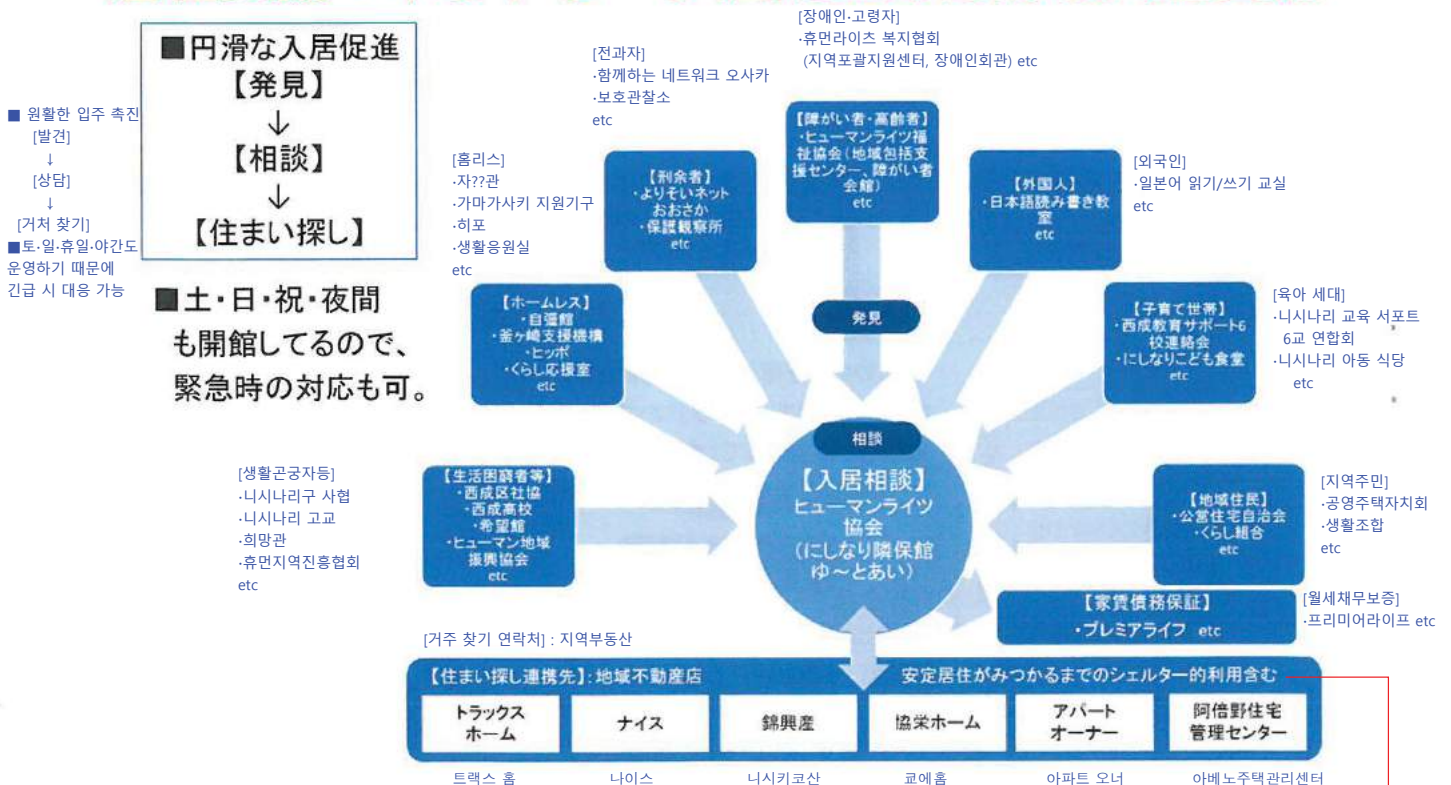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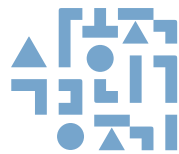
이사회명자 / 주거상실자 / 귀주지 확보

15

거주 지원 : 네트워크 활용하여 원활하게 입주 지원

居住支援：ネットワーク活用型の円滑な入居支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